

# 리아호나



인생에서 주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열 가지 방법, 14쪽

단합으로 하나가  
되는 신권 정원회, 38쪽  
왜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한가? 62쪽  
폴과 나의 데이트 결정, 65쪽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 그  
앞이 청청하[리라]”  
예레미야 17:7-8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선한  
목자

**특집 기사**

- 14 평화와 기쁨,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이러한 10가지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행복의 양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표지  
앞: 사진 삽화 레슬리 닐슨  
앞표지 내부: 사진 © 안 아르투스 베르트랑/고도

- 22 아브라함의 성약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성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 26 각국의 개척자들: “저 광대한 제국”  
— 러시아에서 성장해 가는 교회  
제임스 에이 밀러  
*러시아의 후기 성도들이 현대의  
예언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
- 32 이 새로운 생활을 싹 틔우기 위해  
이브 하트  
*전 세계 개종자들이 어떻게 신앙의  
씨앗을 뿌렸고 복음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렸는지를 나눈다.*
- 38 신권 정원회의 영적인 힘을  
확립하십시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단합과 사랑은  
모든 신권 정원회에게 귀감이 될  
만합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구약의 선지자들: 노아
- 1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봉사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  
마르코 카스트로 카스트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표지판  
제리 피크

48



**48** 말한다, 듣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크 오글트리  
세 가지 대화를 균형있게 나눌 때  
건강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62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다.....

- 52** 성전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 56** 질의응답  
성전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제 삶의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 5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충실하고 사랑 넘치는 봉사  
캐럴 에프 맥콩키
- 60** 가정 복귀 용품을 나눠 주며  
올리벳 가상  
엄청난 태풍으로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봉사할  
기회였다.
- 61** 생명의 책을 채우는 방법  
엘 톰 페리 장로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 하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는 방법.
- 62** 선택은 왜 중요한가  
민디 레이 프리드먼  
훌륭한 결과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선택을 하십시오.
- 65** 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바나 엠 스미슨  
친한 친구인 폴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나는 왜 갈 수 없었을까?

76



- 66** 추수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추수를 겨우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교회 모임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67**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8** 영원한 친구, 나의 가족  
올리비아 코리  
친구들은 올리비아를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한 통이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70** 특별한 증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71** 우리들 이야기
- 72** 전 세계 친구들: 저는 러시아에 사는  
아리나예요  
애미 제인 레빗
- 7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선지자 초상화: 스펜서 더블유 김볼

2014년 2월호 제51권, 제2호  
리아호나 1098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임

제일화장장: 토마스 에스 몬슨, 웬디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호세 엘 알론소, 마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보웬, 스텐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클든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전 배렛, 브리타니 버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콜리본,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홀러, 개릿 에이치 가트, 제니퍼  
그리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어 제이 퍼키, 켈 핀버로우,  
리처드 엠 롬니, 폴 멘덴버그, 마리아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노슨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리스,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힐클라,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우이, 마크 더블유 로비슨, 브래드  
테이, 케이 니콜 워켄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벵크스,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7호, 제51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잡지 구독 신청서'는 www.lids.or.kr '교회와 연락하기' 배부 센터)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벨라루시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무어, 소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ebruary 2014 Vol. 38 No. 2.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안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사진 출처: 크레이그 데이먼드

“노아”, 10쪽: 노아의 이야기를 그림자  
인형극으로 꾸며 볼 수 있다. 방을 어둡게  
하여 벽에 빛(손전등과 같은 것으로)을  
비춘다. 가족과 함께 팔과 손을 사용하여  
벽에 방주, 동물, 비, 비둘기, 무지개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며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치며  
“선지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59) 또는  
선지자에 관한 다른 노래를 부른다.

“영원한 친구, 나의 가족”, 68쪽: 가족  
간의 우정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올리비아와 제인이 했던 것처럼 함께  
페인트칠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후에 토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가족 간에 깊은 우애를 다질 때  
오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족 간의  
우애로 강화된 경전상의 인물들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 니파이와 샘,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에 관해 대화할 수도 있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ids.org](http://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2, 32, 68

간증, 32

감사, 60

개종, 32, 46

개척자, 26

결혼, 12, 48, 52

계명, 62, 66

구원의 계획, 22, 61, 62, 74

기쁨, 14

노아, 10

데이트, 65

러시아, 26, 72

목표, 62

봉사, 4, 11, 14, 32, 38, 44, 58,

60, 70

부름, 14, 32

빛, 45

사랑, 4, 46, 48, 67

선교 사업, 26, 32, 66, 71

선택의지, 61, 62

성신, 45, 80

성약, 22

성전 사업, 14, 26, 32, 52, 56

스펜서 더블유 킴블, 81

시련들, 32

신권, 22, 38

신앙, 14, 47

안식일, 66

예수 그리스도, 7, 14, 47

정원화, 38, 44

침례, 71

평화, 14

표준, 14, 6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사랑으로

##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누가복음 9:2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sup>1</sup>

아래에 나오는 발췌문에서 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도구이며, 다른 사람에게 충실히 봉사할 때, 영원한 축복이 그들을 기다릴 것임을 상기시켰다.

###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

“회장 저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할 때 위대한 봉사가 행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 의식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을 그분들이 받아들일지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시온 산의 구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의해 뭔가가 행해지지 않는 한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때, 우리도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sup>2</sup>

###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

우리 모두가 하도록 부름받은 이러한 봉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봉사입니다.”<sup>3</sup>

### 구주 가까이에서 봉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신대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우리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사도행전 10:38) 가까이에서 봉사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때 얻는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sup>4</sup>



##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활동에서 멀어졌거나 활동화되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청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완전하게 활동화되게 하는 바람직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도울 수 있는데도 지도자들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합당하게 신권을 지닐 수 있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sup>5</sup>

## 우리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까? 존 테일러 회장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164쪽)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꼭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sup>6</sup> ■

## 주

1.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2.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3~114쪽.
3.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86, 87쪽.
4. “봉사하려는 구주의 부름”,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5쪽.
5.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8쪽.
6. “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9쪽.
7.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 (1999년), 12쪽 참조.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닌다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주를 알고 그분을 따르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sup>7</sup> 방문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울 때, 주님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봉사의 여름

### 엘리자베스 블라이트

**어**느 여름에 나는 외국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일하며 지낸 적이 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안했었다. 아이들의 언어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소통할 수 있도록 영이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알아 가면서 언어가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웃고, 공예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내 마음을 채운 기쁨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느낀다. 나는 “너희가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모사이야서 2:17)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커다란 봉사 계획이든 조그만 친절 행위이든 언제나 내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마태복음 5:16 참조)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내가 소망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빛을 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에 산다.

## 사랑의 연결 고리

**어**른의 도움을 받아 종이를 너비 약 2.5센티미터, 길이 약 20센티미터로 잘라 띠 28개를 만든다.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봉사 행위를 한다. 부모님이 청소하시는 것을 돕거나 이웃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쓸 수도 있다.

매일 종이 띠 하나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 적고, 끝 부분을 테이프나 풀로 붙여 고리를 만든다. 전날 만든 고리에 새 띠의 한 쪽 끝을 집어넣어 고리를 만들고 끝 부분을 테이프나 풀로 붙여서 서로 연결한다. 사랑의 연결 고리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본다! 2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봉사 사슬에 고리를 더해 나갈 수 있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무엇을 나눌지 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에, 그리고 방문 교육을 통해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최초로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 자매는 1830년에 일어났던 자신의 개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로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sup>2</sup> 엘리자베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침례 받고 확인받았다.

우리도 또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몬슨 회장은 이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sup>3</sup>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이 부모들도 방황하는 자녀를 찾아 나설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의롭고, 부지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쳐 온 상심한 부모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sup>4</sup>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선한 목자

이 방문 교육 메시지는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특집으로 다룬 연재 기사 중 하나이다.

**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 하리라”(누가복음 15:4,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이해하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커지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같이 이르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4~15).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어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누가복음 15장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에게는 양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기꺼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sup>1</sup>

성구에서

시편 23편; 이사야 40:11; 모사이야서 26:21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70쪽.
2.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128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6쪽.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8쪽.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구주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아는 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가?

2. 복음대로 살지 않고 헤매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을 위한 해답

매 연차 대회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해 영감 어린 대답을 주십니다. 2013년 연차 대회 11월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왜 하나님은 순결의 법을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참조
-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테렌스 엠 빈슨,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참조
- 어떻게 하면 속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에이드리언 오초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참조

##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마십시오. 세월 속에 입증된 예배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며, 삶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복지에 대한 열쇠를 지닌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권 축복을 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주 성찬을 취하고, 온전하게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기적을 믿으십시오. 온통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환경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빨리, 충분히,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번민 속에서 보여 주신 구주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쓴 잔이 지나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마시고 강해지며, 행복한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

“그날이 오면, 필멸의 삶에서는 장애를

겪는 존재로 여겨지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영화롭고 당당하게 설 것임을 증거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41, 42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 유사한 개념 찾기: 회개

연차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몇몇 주제에 관해 한 명 이상의 연사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회개에 대해 세 분의 연사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회개로 이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으로 이끄는 슬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고린도후서 7:10; 강조체 추가)<sup>1</sup>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회개는 형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 가득한 길입니다.”<sup>2</sup>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구주의 속죄 희생은 회개의 원리를 통해 미래에 구원과 승영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속죄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시련을 잘 견뎌 낼 수 있습니다.”<sup>3</sup>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주

1.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56쪽.
2. 리차드 지 스코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힘”,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84쪽.
3.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견뎌 낼 힘”,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79쪽.



## 선지자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가증한 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구주께서 치르셨습니다. 공의는 분명 있어야 하지만, 공의를 앗아가지 않는 자비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 한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기쁨을



## 숫자\*

50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사도로 봉사한 기간

1500만 명 교회 회원

197개국 연차 대회를 시청할 수 있는 나라

80,333 전임 선교사

\* 2013년 10월 연차 대회 현재



느꼈었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 소망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내 손주들에게”,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71, 72쪽.

# 노아

“[노아]는 신권의 권세에서 아담 다음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부르셨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산 자의 아버지였[습니다.]”<sup>1</sup> - 선지자 조셉 스미스

**부**친은 내 이름을 “휴식”을 뜻하는 노아라고 지어 주셨는데, 내가 가족에게 위안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폭력과 증오, 기타 여러 죄악으로 병든 암흑 시대에 살았다.<sup>2</sup>

하나님께서서는 홍수로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배를 짓고 식량과 동물을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세 아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비가 올 것 같은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sup>3</sup>

또한 나는 단 몇 명이라도 내 말을 듣고 홍수를 피하기를 바라며 회개를 외쳤다. 에녹의 변형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많은 충실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sup>4</sup>

마침내 우리 가족은 방주에 올라 문을 밀봉했고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를 때까지 거의 1년간 다시 열지 않았다.<sup>5</sup> 방주에서 내리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하셨다. 무지개는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으로 하늘을 둥글게 수놓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늘리고 계속해서 복음대로 살도록 명하셨으며, 나는 인류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었다.<sup>6</sup>

수 세기가 흐른 후에 나는 가브리엘이란 이름의 천사로<sup>7</sup> 제사장인 사가라에게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마리아에게 나타나 구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sup>8</sup>

내 삶은 하나님을 따른다면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결코 홀로 있게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삶의 홍수는 점차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무지개가 하늘에 걸린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4쪽.
2. 창세기 6:11; 모세서 8:9; Bible Dictionary, “노아” 참조.
3. 창세기 6:14~22; 모세서 8: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킴볼 (2006년), 140~141쪽 참조.
4. 모세서 7:21, 27; 8:15~24 참조.
5. 창세기 7:11; 8:13~14 참조.
6. 창세기 9:1~17 참조.
7. 경전 안내서에서 “가브리엘”, scriptures.lds.org 참조.
8. 누가복음 1:11~20, 26~33 참조.
9. 창세기 5:3~28 참조.
10. 창세기 9:29 참조.
11. 다니엘 8:15~19; 9:21~23 참조.

## 노아에 관한 사실

**이름:** 노아, 가브리엘

**출생일:** 아담 이후 약 1,056년 후<sup>9</sup>

**사망 당시 나이:** 950세<sup>10</sup>

**계보:** 라멕의 아들, 므두셀라의 손자, 아담의 9대손

**현세에서의 역할:** 홍수 이전에는 의의 전도자, 홍수 때부터는 가족과 동물을 구한 구원자, 인류의 두 번째 아버지

**내세에서의 역할:** 가브리엘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재림에 관해 가르침;<sup>11</sup>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나타남



# 봉사

**이** 번 호 58~59쪽에서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인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는 봉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아래의 제언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봉사에 관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봉사가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청소년을 위한 물론 메시지 동영상인 “특별한 은사”(온라인 [lds.org/go/E24service](http://lds.org/go/E24service) 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한 맹인 청소년의 이야기를 전한다. 가족과 함께 동영상을 본 후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한다.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봉사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32쪽)라는 내용이 나온다. 청소년과 함께 가정

에서 하는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가족이 서로에게 봉사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청소년이 가정에서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 “흔히 가장 의미 있는 봉사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친절한 행위를 통해 표현[됩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2쪽) 청소년에게 “일상적인 친절한 행위”로 이루어진 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 봉사가 침례 때 맺은 성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론한다. (모사이야서 18:8~10 참조)
- 가정의 밤 활동으로, 단서를 이용하여 최근 연차 대회에서 봉사에 관한 말씀을 찾는 연차 대회 보물 찾기 놀이를 가족과 함께 해 본다. 찾은 것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지 토론한다.

##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어디에나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족에게 일상 활동 중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한 후, 함께 모여 각자의 경험에 대해 말해 보게 한다.
- 가족 역사나 교회 잡지, 또는 연차



## 이 주제에 관련된 성구

마태복음 25:35~45  
누가복음 10:25~37  
야고보서 2:14~17

대회 말씀에 나오는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모사이야서 2장 17절을 읽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지 자녀들에게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한다.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 또는 부모님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물어 본다. ■

#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

마르코 카스트로 카스트로

성공적인 결혼 관계를 만드는 마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 성공 요소는 똑같다

**아** 내와 나는 몇몇 친구들이 이혼하는 과정을 슬픔과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우리도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올바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상당 기간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조금 지나면 늘 같은 문제로 되돌아갔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주님께서 중대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결혼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헤쳐 나가지조차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에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는 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쭙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하고 나서야 결혼 관계가 그분의 방식과

정하신 시기에 맞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가 칠레 산티아고 성전 제단에서 무릎을 꿇은 후 여러 해가 지났다. 우리 부부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 왔다. 돌아보면, 우리가 겪어 온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더 강하게 단련되었다. 우리는 삶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해 동등한 동반자로서 사랑과

이해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 왔으며, 그런 노력은 값어치가 있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마법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성공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가족 선언문 옆에 우리 가족만의 선언문을 써서 붙였다.<sup>1</sup>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란 제목을 붙인 우리 부부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우리 카스트로 마르티네스 가족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가족 관계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뒤이어 17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우리 부부가 판단하기에, 그것들은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복음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정한 원칙에 혁신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및 가족 기도, 경전 공부, 매주 하는 가정의 밤, 안식일 모임 참석, 정기적인 성전 방문,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 봉사하기 등과 같은 것뿐이다. 우리는 또한 그런 원칙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의 뜻이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했을 때에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

글쓴이는 칠레 발파라이소에 산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십시오

“성공적인 영원한 결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만든 부부들은 신앙을 실천합니다. 매주 성찬식 및 다른 모임들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고,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직하게 심일조를 바칩니다. 부부의 공통 관심사는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칠십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83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평화와, 기쁨,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을 강화하시고, 여러분이 더 큰 신앙을  
행사하고, 성품을 더욱 함양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서양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주춧돌이자 평화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원리, 정결, 고결성, 종교적 가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행사할 능력을 주시어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 기쁨, 목적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신앙은 확고한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신앙, 그분의 행복의 계획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이루시려는 그분의 마음과 힘을  
믿는 신앙보다 더 단단한 기초는 없습니다.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는 도와주시려 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실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 주십시오.
- 영의 조용한 속삭임에 민감해지고 그 속삭임에 따라 용감하게 실천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이며 그분의 응답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십시오.

신앙과 성품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힘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사용하여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성품은 교리, 원리, 순종이라는 실로 꾸준히 짜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상에서 보내는 삶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품을 보실 것입니다. 강한 도덕적 성품은 삶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 나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한 선택은 믿는 바에 따라 실천하면 그것의 참됨이 입증될 것이라고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합당한 성품

여러분이 이해의 경계선을 넘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설 때 신앙을 행사한다면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코 얻지 못할 해결책들을 찾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굳건한 신앙을 발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 즉시

보상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분의 계획에 비춰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번에 조금씩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계속 행사하면,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필요한 강한 성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은 큰 시련이나 유혹이 닥치는 순간에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함으로써 키우는 것입니다.

성품의 기반은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를 인식하고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역량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강한 성품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배운 것, 성취해 온 목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결 같은 신앙을 행사한다면 굳건한 성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된 성품은 신앙을 행사할 능력을 배가시켜서 결국에는 삶에서 겪는 시련을 이겨 낼 능력과 자신감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이 강화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성품이 더 강해질수록 신앙의 힘을 행사할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어디에 살건, 직업이나 삶의 관심사가 무엇이건 간에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 싸움은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군대의 특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강히 반대하며 그분의 계명을 계속 어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꾸준히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강화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사탄이나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발전하는 성품을 약화하거나 망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여러분이 자신의 성품을 서서히 약화시킬 결정을 하도록 유혹하는 데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적인 선택을

경전 공부, 기도, 기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가정에서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샘에서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매력적이고 도리어 더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탁월합니다. 따라서 조심하십시오. 인생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여러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현재와 영원에 이르도록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명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 영원한 진리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1)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2) 영원한 진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용인될 법한가? 가장 빠르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방식은 루시퍼에게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됩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해롭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하도록 유혹할 기회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결정하는 데 지속적인 지침이 될 만한 근원적인 가치나 표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사람의 힘과 도움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진리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성신의 인도로 도움을 받아 불변하는 진리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더하여, 어려운 시기에 신성한 영감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질 것이며,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과 평화, 행복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삶이 쉬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증명하고, 발전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시련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들을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마주할 필요가 없는 시련도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범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한 비극을 지속적으로 피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르고 사악하며 슬픔을 야기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성신의 인도와 도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성신의 속삭임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 위에 머물게 해 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라고 가르칩니다. 일시적이고 매혹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여러분이 알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삶의 방식에 예외 사항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도 많은 젊은 부부와 개인이 인생에서 잘못된 근원에 의지하여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아주 조금만 타협하라는 유혹에 넘어갔고 참된 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그러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의  
기초라고 가르치며 가정의  
안전과 성결함, 가족의  
고결성을 지키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십시오

합당하게 살려는 결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속의 결의가 주위의 압력에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서로에게 숨기는 비밀이 전혀 없게 하십시오. 이는 의로움과 행복을 약속하는 강한 보호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함께하십시오.

경전 공부, 기도, 기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가정에서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전 성약을 받을 때 성약을 존중하고 성약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샘에서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간단히 말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십시오. 독신일 때도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만큼 모두 지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딸인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원리들을 파괴하려 하는, 점차 커져 가는 압력에 맞서 이 원리들을 수호할 여러분과 같은 남성과 여성이 더 많이,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옳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옳은 것으로 정의하신 것을 위해 고귀하고 용감하게 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영적이고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고결한 정치인,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고결한 사업가,

정의와 법률 체계를 옹호하는 변호사, 옳기 때문에 원리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안전과 성결함, 가족의 고결함을 지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나라, 가정의 도덕성을 드높이기 위한 의로운 영향력, 밝은 빛의 중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이 한 순간을 위한 삶을 삽니다. 원리, 영원한 율법, 진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에서는 현재의 상황, 혹은 이익을 위한 내일의 기회가 무엇이냐를 근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방법을 보여 줍시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이 지구의 창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할 것입니다.

권력, 영향력, 물질적인 부에서 얻는 기쁨은 덧없지만, 참되고 영속적인 행복, 즉 새벽녘에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떳떳할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행복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고결, 정결, 덕, 그리고 그 순간에는 분명히 매혹적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미래의 더 큰 선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원리를 따르기 위해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필요한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계획을 따를 때 오는 성공

여러분이 따르게 될 주님의 계획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교회 봉사, 직장,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을 인도할 원리를 확립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구분하여 교회용 표준과 직장용 표준, 그 외 분야에서 따르는 표준을 따로 둡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치에 맞는 표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봉사, 순종, 고결성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표준에 어떤 예외도 만들지 마십시오.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삶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에서 교묘하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삶을 워싱턴디시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되어 그 도시로 온 교회 회원들을 기억합니다. 그중 일부는 직장 생활 내내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더 이해받는다면, 내가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될 테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표준에 작은 예외 사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표준에 예외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충실하십시오. 그 가르침은 매우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정규 교육을 자신이 아는 주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의 모범과 결합시킬 때, 여러분은 단단한 기초를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충실하십시오.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십시오. 무엇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십시오. 성공은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 옵니다. 직업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일을 찾으십시오. 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가치 있고 선한 것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재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넷째, 주님께서 여러분이 봉사하며 머물기를 바라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구주의 계명대로 합당하게 살고 모든 면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려 애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행복이 찾아오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웃으십시오. 항상 농담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끔 하는 훌륭한 농담은 긴장을 풀어 줍니다. 삶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골칫거리가 있고 타인의 고민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고민을 제쳐두고 웃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유머 감각을 키우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재미난 이야기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박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 훌륭한 유머 감각 말입니다. 실제 기분이 어떻든간에 웃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을 옷걸이를 넣고 주무십시오. 좋은 유머 감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불평하지 마십시오.** 삶이 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놀라운 기회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 온 힘을 다해 일에 열중했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예전 제 상사 한 사람은 제 아이디어와 제안, 업무를 모두 자기 것처럼 자기 상사에게 보고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하고 있거나 해 보려는 모든 것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상사에게는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제 상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일은 매우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덟째, 언제나 교회에서 임무 지명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특정한 부름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감리 지도자들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십시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도자들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그분께 봉사하는 방법에 항상 관여하십시오.

마지막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성전에 가십시오.**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인봉되는 그날까지 성전에 가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나 성전 추천서를 받아서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는 영적으로 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해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봉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고민을 제쳐두고 웃어 보십시오.

선지자들처럼 훌륭한 유머 감각을 키우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인생의 지침서로 삼으십시오. 그 어떤 예외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으로 기꺼이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또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선하고도 훌륭한 영향력을 알아 가십시오. 그 영향력은 진리에 기초한 양심과 원리에서 발현되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의로움, 고결성, 확신의 모범이 되겠다는 결심을 여러분 삶의 매 순간에 반영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지상에 온 목적에서 분명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 의의 일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앞서 이야기한 원리들이 참되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 입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세력에 맞서서 원리를 수호하겠다는 선택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무릅써야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조차 저를 단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옳은 것을 하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예상했던 손해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옳은 일을 했던 것이 더 크고 의미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잘못되지 않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한 가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미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저는 하이먼 지 릭오버 사령관 밑에서 일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은 제게 가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를 불렀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그게 물몬들의 일 처리 방식이라면 앞으로 내 일에 물몬들을 절대 기용하지 않겠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많은 가족이 그 사령관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드리다가 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의의 일 하세 보람 있으리니”(“의의 일 하세”, 찬송가, 177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어려움을 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의의 일 하세 보람 있으리니”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릭오버 사령관은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밑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저는 비서에게 사령관을 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 비서는 깜짝 놀라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트, 앉게나. 할 말이 뭔가? 자네 결정을 반복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네. 자네가 가진 것이 도대체 뭔가?”

저는 물론경 한 권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자 릭오버 사령관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사업이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내 밑에서 일해 주게.”

“의의 일 하세 보람 있으리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을 강화하시고, 여러분이 더 큰 신앙을 행사하고 성품을 더욱 함양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함당하게 구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권능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성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저는 깊은 확신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큰 시련이 닥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고,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의 기반이자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

2011년 4월 21일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1.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원리를 확립하십시오.
2. 표준에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3. 충실하십시오.
4.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5.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6. 웃으십시오.
7. 불평하지 마십시오.
8. 언제나 교회에서 임무 지명을 받으십시오.
9. 성전에서 예배하십시오.
10. 구주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 시대 개관 도표 1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도표 2는 2014년 하반기에 실릴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으신 성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더 완전하게 알 수 있다.(경전 안내서, "아브라함의 성약", scriptures.lds.org 참조)

약 4,000년 전, 여호와(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명칭)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이 성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아브라함서 2:9~11 참조) 오랜 세월을 걸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차 확인해 주셨다. 현대에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도 아브라함의 성약을 새롭게 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124:58; 132:30~31 참조) 이 회복된 성약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결혼을 포함한 거룩한 신권의 모든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전 안내서, "성약", scriptures.lds.org 참조) 우리의 혈통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영감에 따라 선언되는데, 혈통에 따른 축복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신권 의식들을 받고, 끝까지 견디며 성약을 지켜야 한다.

이 도표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에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짓 신을 숭배했다. **아브라함서 1:1, 5-7, 27**

**2** 아브라함이 침례를 받았다. 그는 멜기세덱에게서 신권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84:14; 아브라함서 1:2~4**

**3** 여호와(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거짓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려는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셨다. **아브라함서 1:8~16**

**4**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도록 명하시며, 아브라함의 성역을 통해 여호와와 이름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서 1:16~19**

경륜의 시대

동반구

서반구

\*기원전 2025년

\*기원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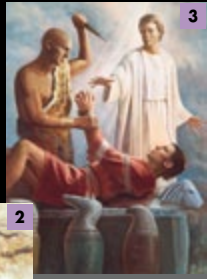
1

2

3

4

5



사라

아브라함

집합

**12** 예언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일부는 애굽 땅에서 "객"이 되리라. **창세기 15:13~14**

**13** 사라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창세기 16:1~4; 교리와 성약 132:28~35**

**14**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후손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창세기 16:7~16**

**15**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성약의 표징으로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할례하게 했다. **창세기 17:1~27**



**5**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 외 가족들이 하란 땅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서 2:1~5

**6**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상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서 2:6-11

**7**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의롭다면 그 땅을 소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서 2:6, 12~25

**8** 우림과 둠림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좌와 전세, 지구의 창조를 보았다.

아브라함서 3~5장

**9**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복음 전도사가 되었으며, 또한 번영했다.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3

**10**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분의 성약을 확인하셨다.

창세기 13:1~4, 12~18

**11** 여호와께서 시현 중에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을 표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성약을 재확인하셨다.

창세기 15:1~21

## 아브라함

야렛의 형제 (야렛인)

\*기원전 1950년

\*기원전 1900년

\*기원전 1825년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1



17

19 20 21 22



21



10



14

이삭



19

리브가 (이삭의 아내)

하갈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두라

미디안족

## 분산

## 집합

**16 예언**  
사라가 이삭이라 불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성약이 세워지리라.  
창세기 17:15~21

**17** 이삭이 태어났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 16 참조)  
창세기 21:1~5, 12~13

**18 예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아버지 되리라. 이스마엘의 자손은 열두 족속(국가)이 되었다."  
창세기 21:17~20; 25:12~16

**19**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보신 후 그분의 성약을 확인하셨다.  
창세기 22:1~19; 야곱서 4:5

**20**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 난 여섯 아들 또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5:1~4; 교리와 성약 132:28~35

**21** 아브라함이 모든 아들을 축복하고 재산을 나눠 준 후,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창세기 25:5~10

**2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들의 후손을 위해 아브라함의 성약을 확인하셨다.  
창세기 26:2~5, 24~25; 교리와 성약 132:37

**2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위해 아브라함의 성약을 확인하셨다.  
창세기 28:10~22

**24**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와 결혼했다. 열두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창세기 29~30장;  
교리와 성약 132:37

**25**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창세기 31~32장

**26** 여호와께서 베넬에서 야곱(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의 성약을 새롭게 하셨다.  
창세기 35:1~13

**2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도록 명하셨다.  
창세기 46:1~7

**28** 이스라엘이 아들들과 손자 에브라임 및 므낫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창세기 48:21

**29** 예언 요셉이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창세기 48:19; 49:22~26

경륜의 시대

동반구  
서반구

모세

야렛의 형제 (야렛인)

\*기원전 1800년

기원전 1600년

기원전 1300년

23

24

25

26

27

28

30

31

34

35

36

37

38

에서

유딧

바스맛

에돔

레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

야곱

실바

갓

아셀

빌하

단

납달리

라헬

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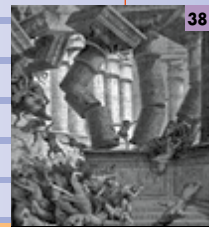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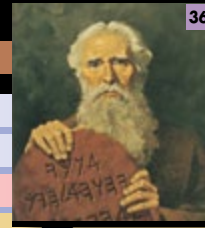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스라엘의 자손들

미디안족

모세, 아론



집합

분산

집합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어 성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상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다.  
여호수아 1:1~9

**38** 가나안에서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성약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사사기 2~3장

**39**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과 영원한 성약을 맺으셨다.  
사무엘하 7:1~17;  
교리와 성약 132:38

**40** 예언 북왕국 사람들 (이스라엘로 일컬어짐)과 남왕국(유다) 사람들이 모든 나라로 흩어지리라.  
아모스 9:5~10;  
미가 3:9~12

**41** 예언 메시아(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고통받고 대속하시리라.  
이사야 53장

**42** 예언 주님은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며 모든 나라를 향해 깃발을 세우시리라.  
이사야 11:11~12;  
아모스 9:9

**43** 예언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대속하시며 권능을 모든 나라에 보이시리라.  
이사야 40:1~2, 11; 41:10; 52:9~10

**30**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불어났으며 이스라엘의 자녀로 (또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예언 12 참조)  
창세기 50장

**31**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하시고자 선지자(모세)를 "일으키셨다."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4, 34~36(경전 안내서); 니파이후서 3:10, 17

**32** 예언 이스라엘 가족이 흩어지고 한 "가지"가 미국에 거하리라.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5(경전 안내서); 니파이후서 3:3~5, 16

**33** 예언 "뛰어난 선견자"(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을 회복하리라.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5~33(경전 안내서); 니파이후서 3:6~15

**34** 모세가 이드로에게서 신권을 받았고, 여호와와 방문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을 떠났다. (예언 31 참조)  
출애굽기 3:1~10; 13:17~22; 교리와 성약 84:6

**35**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성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출애굽기 19:3~9; 24:3

**36**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성약을 어겨서 낮은 율법인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받았다.  
출애굽기 3:32~34; 갈라디아서 3:19~24; 교리와 성약 84:19~26

기원전 1000년

기원전 700년

기원전 400년

기원전 100년

39



다윗 왕

40 41 42  
43 44

이사야\*\*

45



45

46 47 48



느헤미야

49



49

50



50

**예언: 지노스의 비유** (약 기원전 1800~400)

가꾼 감람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집이 썩기 시작하자 포도원 주인이 연한 가지가 새로 나올 때까지 돌보았다. 주인은 연한 가지들을 떼어 내어 포도원 곳곳에 있는 다른 나무에 접붙였다. 주인은 가꾼 나무에서 말라 죽기 시작한 주된 가지들을 잘라낸 후, 들감람나무 가지들을 그 자리에 접붙였다.

야곱서 5:3~14 (도표 2에서 계속됨.)



리하이(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아라비아 민족들

북왕국 (열왕기상 122:2~20) 참조

북왕국 분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남왕국

남왕국 분산 (열왕기하 25:1~10 참조)

**44** 예언 위대한 복천년 기간에 지구가 새로워지며, 모든 병과 슬픔이 끝나리라.  
이사야 25:6~9; 33:20~24; 35장; 61:2~5

**45** 북왕국 백성들이 그들의 간악함 때문에 잇사리아인에 의해 흩어졌다. (예언 40 참조)  
열왕기하 17:5~18

**46** 예언 일부 유대인(잔류민)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4:4~7

**47** 여호와께서 리하이 가족과 아브라함의 성약을 확립하셨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미대륙에서 한 국가를 이루었다. (예언 29, 32 참조)  
니파이전서 1~2장; 18장

**48** 남왕국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성약을 거부하여 바벨론인들에 의해 흩어지게 되었다. (예언 40 참조)  
열왕기하 25:1~10

**49** "유대인"으로 불리는 일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권면했다. (예언 46 참조)  
느헤미야 8~10장

**50** 하스몬(마카비) 왕조가 가나안 땅에 유대라 불린 독립 유대인 국가를 수립했다.



# “저 광대한 제국”

## 러시아에서 성장해 가는 교회

러시아 후기 성도들은 계시를 기반으로 조국에 교회를 확립해 왔다.

제임스 에이 밀러  
교회 역사부

**20** 11년, 그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수천 명이 넘는 교회 회원, 선교사, 친구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며, 새로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조국의 수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시온의 스테이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야코프 보이코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블라디미르 아스타스카브와 빅토르 크레멘쿠그가 보좌로 부름받고 지지되자 기대감이 높아졌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부름받은 내국인 축복사이자 스테이크 축복사로 비아케슬라프 프로토포포프가 소개되었을 때 회중은 감격해했다. 지지를 위해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회원들은 손을 번쩍 들었고, 일부는 기쁜 나머지 손뼉을 치기도 했다. 세계 다른 곳의 스테이크에서 후기 성도들이 누리는 열쇠와 권세를 이제 러시아 신권 지도자들도 받게 된 것이다. 모스크바의 교회 지도력이 러시아인들의 손에 확고히 놓이면서, 러시아 교회 역사의 새 장이 열렸다.

### 예언

러시아 교회 역사에서 이 중대한 날이 있기까지 그 연원을 살펴보면, 회복의 초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43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지 에이 애덤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율슨 하이드 장로에게 러시아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저 광대한 제국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부름을 주었고, 또한 “후기에 하나님 왕국의 진보와 건설에 관해서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달려 있다[고]”<sup>1</sup> 설명했다. 그러나 1844년에 선지자가 순교하면서 그 계획은 중단되었고, 복음과 관련된 “저 광대한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선지자의 계획은 완수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sup>2</sup>

### 준비

러시아에 최초의 선교사가 발을 내디딘 날부터 최초의 스테이크가 확립될 때까지 168년이란 세월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각국에서 온 후기 성도들이 러시아 국민들과 복음을 나눌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었다. 1895년, 스웨덴인 선교사 오거스트 호그룬드가 요한 린드로프를 가르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왔다. 린드로프가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국인 핀란드에서 교회에 대해 알고 난 후에 선교사를 보내 주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호그룬드 장로를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요한과 그의 아내 알마는 이들 만에 침례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1895년 6월 11일, 호그룬드 장로는 그들과 함께 네바 강둑으로 갔다. 침례식을 거행할 조용하고 인적 없는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일행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배들과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침례를 받은 후 린드로프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행복해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sup>3</sup>



한 러시아 화가가 190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 정원에서 헌납 기도를 드리는 프랜시스 엠 라이먼 장로를 묘사한 그림.

그렇게 요한과 알마는 러시아에서 침례 받은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

몇 년이 흐른 후, 린드로프 부부의 개종과 더불어 러시아 정부의 사회 개혁 계획에 고무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랜시스 엠 라이먼(1840~1916) 장로가 제정 러시아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1903년 당시 유럽 선교부 회장이었던 라이먼 장로는 제정 러시아로 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땅을 헌납했다. 8월 6일과 9일, 라이먼 장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주님께 그 땅의 지배자와 “핏줄에 이스라엘의 피가 풍부하게 흐르는”<sup>4</sup> 이 제국의 수많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로 간구했다. 또한 라이먼 장로는 기도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찾도록 해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지혜와 신앙이 충만한 종들을 보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다.”<sup>5</sup>

라이먼 장로는 선교사 미하일 마르코프를 당시 제정 러시아 영토였던 라트비아 리가로 보냈으며, 러시아에 선교사들을 파견해 달라는 편지를 교회 본부로 발송했다. 한편,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에 러시아 정교에 배치되는 어떠한 것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러시아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르코프 장로는 지방 관료의 명령으로 곧 리가를 떠났다.<sup>6</sup> 결국, 증폭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제1차 세계대전의 중압으로 악화되고, 뒤이어 혁명과 내란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소련의 형성과 그 결과로 생긴 냉전으로, 선교사들을 러시아로 보내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소련 시절에도 후기 성도들은 러시아에 회복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이민 온 안드레 아나스타시안이다. 1918년에 침례를 받은 이후 그는 몰몬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안드레는 이렇게 기록했다. “밤에 두 차례나 붉은 광장에 서서 이 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남루한 차림에 머리를 숙이고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이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 애원했다.”<sup>7</sup> 안드레의 번역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어 몰몬경 첫판은 1981년에 출판되었다. 이윽고,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몰몬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각자 자신의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그들의 희망과 기도가 완수되도록 돕는 개척자가 되었다.

### 개척자

1989년, 상트페테르부르크(당시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림.)에 살던 유리와 리우밀라 테레베니언은 딸인 안나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친구들을 방문했다. 그때 한 후기 성도 친구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영을 느껴 선교사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들은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지냈으나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온 교회 회원들이 이미 러시아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침례 받은 최초의 러시아인 개종자 안톤 스크립코도 그 가운데에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모스크바에 거주하며 일하던 미국인들은 러시아인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다가갔다. 도훈 손턴은 1989년에 갈리나 곤차로바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종교를 주제로 자주 토론을 벌였다. 손턴 형제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갈리나]에게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 소책자를 건네주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방의 모든 빛이 책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영이 우리를 감쌌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sup>8</sup> 갈리나는 손턴 형제에게 책이



1930년: “그 땅 [러시아]에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1873~1939)<sup>15</sup>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1990년 6월에 침례를 받아, 모스크바에서 침례 받은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비보르크, 모스크바, 그 외 도시에서도 러시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러시아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1990년 4월 2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넬슨 장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의 1세기 전에 라이먼 장로가 러시아를 위해 했던 헌납을 재확인하는 재헌납 기도를 드리며 복음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간구했다.

회장으로 봉사했다.

### 성장

1903년에 라이먼 장로가 드린 헌납 기도대로 지도자들이 “지혜와 신앙”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1990년 초반에 선교사들이 파견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했다. 충실한 러시아인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책임을 받아들였다. 많은 도시에 지방부가 세워졌고, 피드리스 카스부린 같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지원했다. 1994년에 교회에 들어온 카스부린 형제는 1995년부터

1843년: 조셉 스미스가 러시아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부름.  
1844년 조셉 스미스의 순교로 계획이 무산됨.



1903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랜시스 엠 라이먼 장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제정 러시아를 헌납함.

1917년: 볼셰비키 당원들이 차르 폐위 후 세워진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1917~1922년에 러시아 내전이 발발함.



1922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출범됨.

1990년 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타마라 이피마프는 친구의 집에서 만난 선교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아버지 바체슬라프 이피마프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에 관해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리라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들이 나누는 복음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 기회를 통해 그 동안 품어 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고, 우리 각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바체슬라프와 그의 아내 갈리나, 그리고 타마라는 그해 6월에 침례를 받았다. 이피마프 형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러시아 최초의 내국인 선교부

1997년까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초대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후 러시아 로스토프 지방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지방부 회장으로서 가족 강화를 강조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봉사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장차 성전에서 결혼할 준비를 하도록 도왔다.<sup>10</sup>

### 성전

러시아 후기 성도들은 조국에 성전이 없다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집에서 의식에 참여했다. 15년 이상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성전이었다. 한편 동부 끝자락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계속 한국 서울 성전에 참석하고 있다. 비자, 장거리, 여행 비용 등의 문제로, 이들에게 성전 참석은 자주 할 수 있는



1995년: “여러분은 현재 여건이 되는 곳에서 모이지만, 살아가면서 예배당과 스테이크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sup>16</sup>



경험이 아니다.

1991년 12월, 비보르크에 사는 안드레이와 마리나 세미오노프 부부는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은 첫 번째 러시아인 가족이 되었다. 세미오노프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영원토록 인봉되고 난 후 저희의 삶에는 특별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sup>11</sup>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스웨덴 성전에 참석하는 모든 러시아인 일행들과 동행했다.

후에 선교부 직원들은 성전 여행을 할 그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993년 9월, 모스크바에서

핀란드 헬싱키 성전을 헌납함으로써 러시아는 성전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2010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을 헌납하자 러시아 전역의 후기 성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은 과거 소련의 영토를 통틀어 최초로 지어진 성전이었으며, 이로써 충실한 러시아인 성도들은 더 쉽게 성전 축복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러시아의 교회

우크라이나에서 성전이 헌납되자 러시아



1981년: 물문경이 러시아어로 출판됨.



1991년: 물문 태버네클 합창단이 소련을 방문함. 합창단 공연 후 러시아 관료들이 교회가 5월 28일에 국가 공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러시아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이 됨.



스톡홀름으로 가는 첫 번째 그룹이 출발했다. 러시아 전역의 회원들은 이러한 성전 방문을 가장 중요한 헌신으로 받아들였다.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사는 베르쉬닌 가족은 2000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을 처음 방문했다. 세르게이와 베라, 그리고 그들의 딸 이리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다른 여러 도시에서 온 러시아 후기 성도들과 합류하여 버스와 배를 타고 성전으로 향했다. 성전에서 이리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았고, 또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이리나는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간증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각자 개별적으로 작은 간증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영적 성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sup>12</sup>

2006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물문 도움의 손길”로 조직된 러시아 후기 성도들이 2013년 모스크바 근처의 학교 부지와 호숫가 근처에서 청소하는 것을 돕고 있다.



회원들은 러시아에서 펼쳐질 교회의 미래에 대해 더욱 굳건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키예프 성전 헌납 후에 모스크바에서 온 블라디미르 카바노비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여기 [러시아]에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자리 잡아 갈 것을 상상”<sup>13</sup>한다고 말했다.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 비전은 실현되었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크를 조직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2년 9월, 넬슨 장로는 두 번째 스테이크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조직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러시아 후기 성도들이 20년간 애써 온 개척자와 같은 봉사과 발전이 정점을 이룬 것들이지만, 이것은 러시아 지역 교회 역사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 회원 증가

1989: 20  
1998: 9,179  
2008: 19,946  
2013: 21,888



### 러시아의 교회 통계\*

스테이크: 2개  
지방부: 3개  
와드 및 지부: 98개  
선교부: 7개  
가장 가까운 성전: 우크라이나 키예프, 핀란드 헬싱키, 한국 서울

\* 2013년 6월 현재

2002년: 9월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함.



2008년: 러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아나톨리 레셰트니코프가 러시아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음.

2011년: 6월 5일에 러시아의 첫 번째 스테이크인 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크가 조직됨.



2012년: 9월 9일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크가 조직됨.

것에 불과하다. 2012년 6월,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 성도들을 방문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끌고 계시다고 간증했다. “그분의 영이 이 지역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sup>14</sup> 러시아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봉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성전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스테이크가 세워질 것이며, 교회는 러시아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광대한 제국에서 후기에 펼쳐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현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41. 선지자가 “지금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언급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러시아 자체나 선교 사업, 또는 선교사 메시지를 말한 것일 수도 있다.
2. 조지 에이 에덤스는 조셉 스미스의 죽음 이후 브리검 영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교회를 떠났다.
3. 오거스트 호그룬드가 스칸디나비아 선교부 회장에게 보낸 편지, 1895년 7월 9일자, 스칸디나비아 선교부 필사본 역사,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카힐 메르 인용, “Johan and Alma Lindlof: Early Saints in Russia”, *Ensign*, July 198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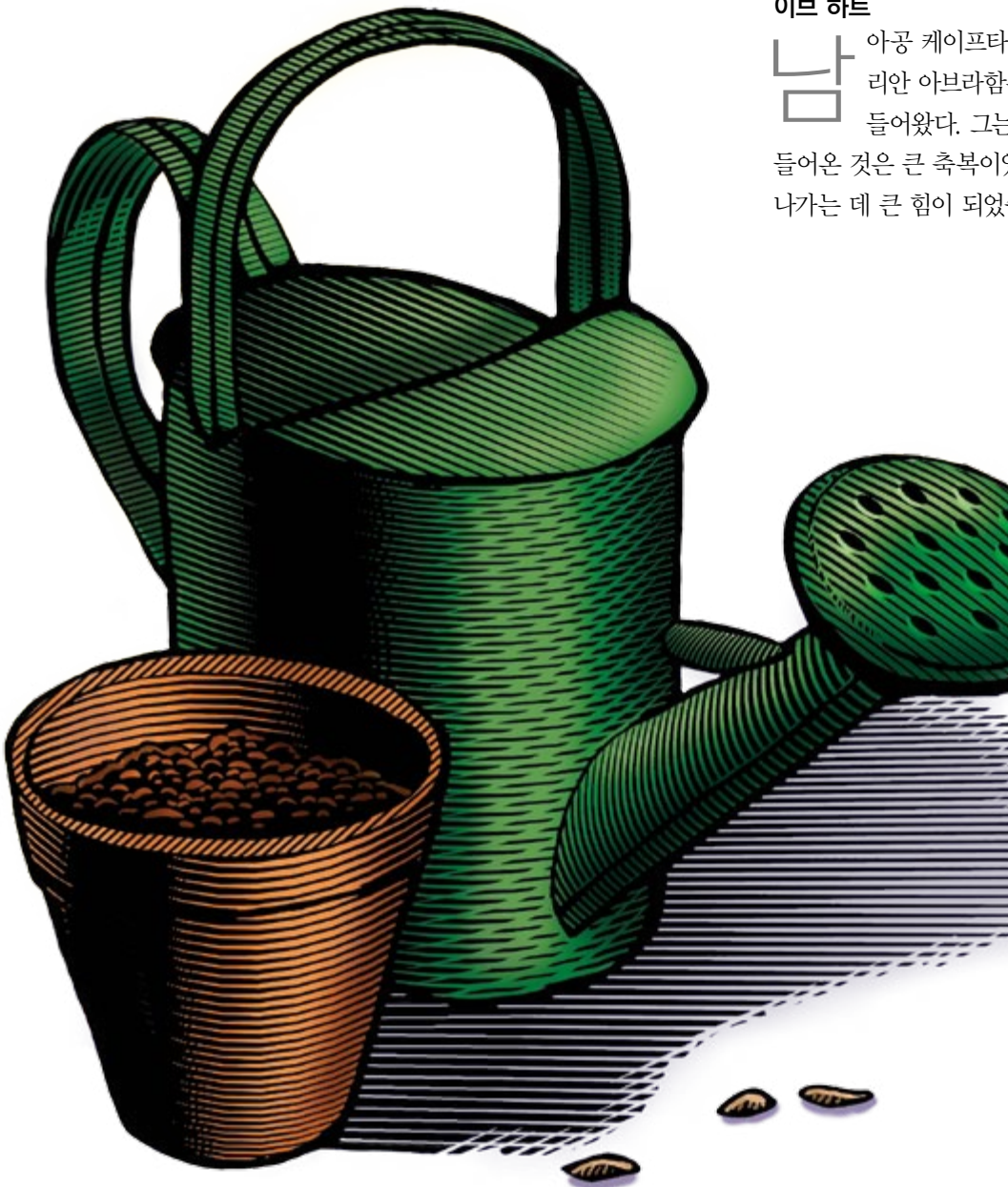
4. Joseph J. Cannon, “President Lyman’s Travels and Ministry: Praying in St. Petersburg for the Land of Russia”, *Millennial Star*, Aug. 20, 1903, 532.
5. Joseph J. Cannon, “President Lyman’s Travels and Ministry: The Visit to Moscow, the City of Churches”, *Millennial Star*, Aug. 27, 1903, 548.
6. William Hale Kehr, “Mischa Markow: Missionary to the Balkans”, *Ensign*, June 1980, 29 참조.
7. 안드레 아나스타시안이 십이사도 평의회에 보낸 편지, 1970년 11월 8일자,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8. 도호 손턴, “The Beginnings of the Moscow Branch”,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회 시작과 관련된 서류 및 사진*(1990~1992년),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9. Vyacheslav Efimov, Gary L. Browning, *Russia and the Restored Gospel*(1997), 73.
10. 엘리슨 톱 폰드, 피드루스 카브라크마노비치 카스뷰린의 구전 역사, 2010년 8월 18일,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참조.
11. 안드레이 세미오노프, 게리 브라우닝,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유산”, *성도의 빛*, 1998년 4월호, 36쪽.
12. 이리나 보로디나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3월 6일.
13. Vladimir Kabanov, Jason Swenson, “Russia’s first stake a powerful symbol of country’s growth”, *Church News*, July 9, 2011, ldschurchnews.com.
1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동유럽 개척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영”,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15. Melvin J. Ballard, Conference Report, Apr. 1930, 157.
16. 보이드 케이 팩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서 테니스 비 노인슈안터가 기록한 내용, 1995년 11월 18일.

이 새로운 생활을

# 씩 틱우기 위해

이브 하트

**남** 아공 케이프타운 해안의 산간 지역에 살던 리안 아브라함은 14세에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들어온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십 대 시절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 신앙의 씨앗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엘마서 32:21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 회장단 제2보좌,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후 저는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안의 여정은 다른 개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복음의 진실함을 믿지만 새로운 기대치가 있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안은 이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활해 나가면 더 많은 지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기사는 개종자들의 간증과 경험을 편집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이 일곱 가지 기사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계속 남도록 힘이 될 용기를 얻고 자신의 새로운 신앙이 “뿌리를 얻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엡마서 32:37) 때까지 계속 애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역경을 극복하며

회복된 복음의 빛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서 겪게 되는 시련을 견뎌 낼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태복음 25:21)라는 말씀을 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며,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한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엘손 칼로스 페레이라, 1982년에 브라질에서 침례 받음**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미키코 오배년, 1993년에 일본에서 침례 받음**

## 기초를 닦는 데 힘쓰며

저는 교회에서 충실하기 위해 어떤 별다른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찬식에 가려고 80킬로미터를 걷거나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름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을 꾸준히 행한 것이 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엡마서 36:6~7 참조)

**알세니르 데 수자, 1991년에 브라질에서 침례 받음**

열아홉 살에 교회에 들어와서 저는 복음에 대해 흥미를 느꼈으며,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이 놀라운 탐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원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겨우 교회에 가서 모임에서 얻는 것도 거의 없이 집에 돌아갔고, 낮잠만 자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상황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기도를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해 왔고, 매일 아침 경전을 읽는 것이 기쁨이 아닌 따분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양분 및 운동으로 매일을 활기차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전을 읽을 때면 먼저 영으로 인도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시간제 근무를 했었는데, 15분 휴식 시간에는 제 영혼을 위한 간식으로, *엔사인*을 몇 쪽씩 읽었습니다. 밤에는 마음을 고양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교재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도 읽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온종일 영적 허기를 채워 온 덕분에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식이요법을 하면서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간증도 더 커졌습니다.

**테스 호킹, 197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침례 받음**

## 성전에 가며

성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저는 줄곧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성전이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고, 가족으로 인봉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높은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장소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준비시켰고 합당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야신타 우란다리,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침례 받음

침례를 받은 후에 (이미 교회 회원이었던) 남자친구 JP와 결혼할 계획이었지만, 큰 축하 파티를 하고 싶어서 결혼 날짜를 미뤘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목요일에 저는 약혼자와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기를 기다리는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감히 밖으로 빠져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JP와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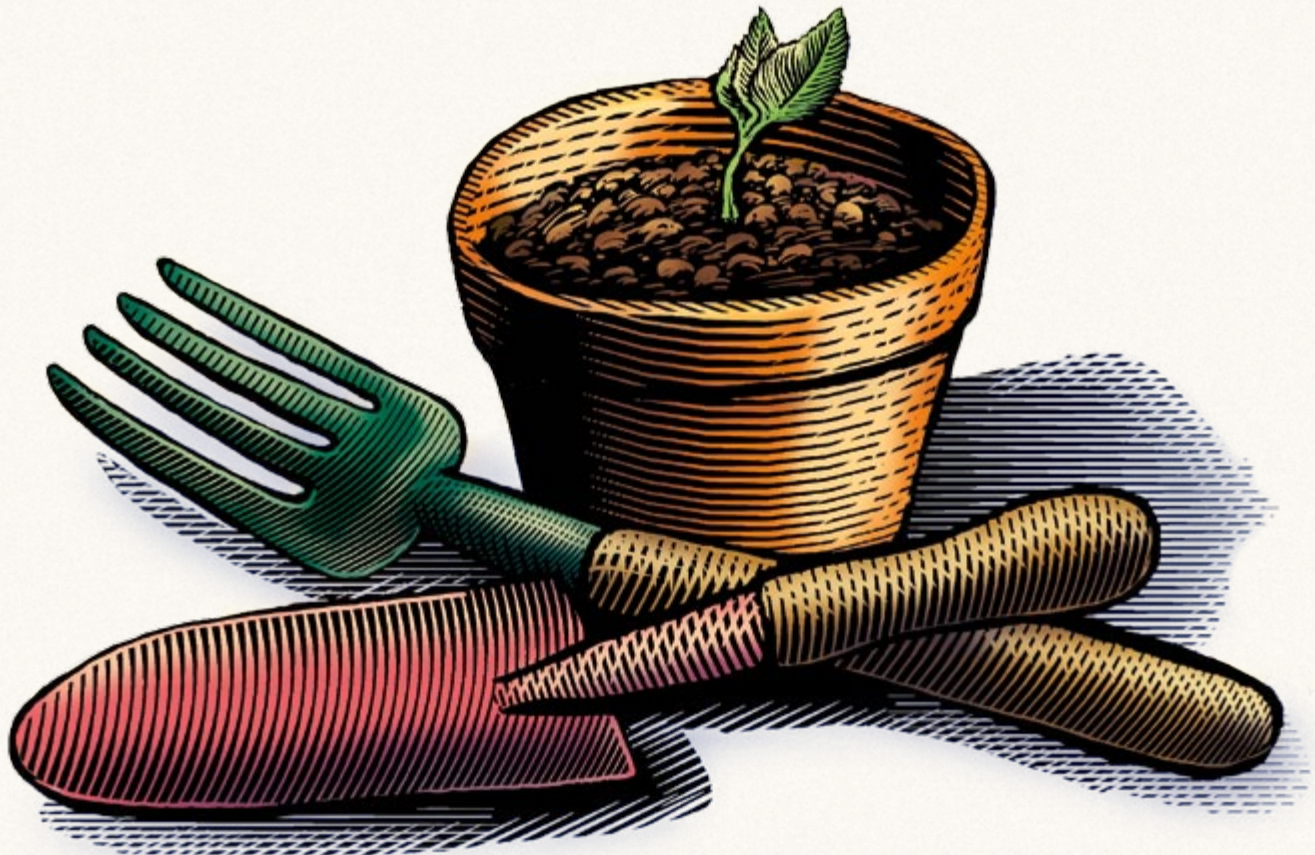
주세요.”

잠시 후, 흔들림이 멈췄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어느덧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JP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JP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오빠는 무사해요!” 그녀는 외쳤습니다. “건물 잔해에 갇힌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사고를 피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JP와 침례 받은 후 1년이 조금 지난, 그리고 지진이 있는 지 약 3개월 후인 2010년 4월 6일에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평화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큰 파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제게 가장 멋진 날이었습니다.

마리 마조리 라베, 2009년에 아이티에서 침례 받음.





## 복음을 나누며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선교 사업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면, 그 사람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간증이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서 빛을 볼 수 있으며, 그토록 놀라운 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알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영을 느끼게 해 주고 개인적으로 영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엘레나 헌트, 2008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침례 받음

저는 선교 사업을 사랑합니다! 침례 받고 3개월 후, 저는 가족과 함께 여름 방학을 보내려고 마르티니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매일 형에게 물문경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에 교회에 가자고 권했지만, 형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에는 저를 따라 형도 교회에 갔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형은 세 시간 동안 아무 특별한 것도 경험하지 못한 양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형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입고 갈 옷을 다리는데, 형도 옷을 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너와 교회에 갈 거야.”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러자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 후로 형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학교가 있는 프랑스 남부로 돌아간 후에 형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형이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것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티니크로 돌아갔을 때에도 형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 다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성찬식에서 진리에 대해 힘차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눴던 형과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엘마서 26:11~16 참조)

루도빅 크리스토프 오클리에, 2004년에 프랑스에서 침례 받음

**복**음을 친구와 가족들과 나눌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3쪽; 닐 에이 앤더슨 장로,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쪽;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쪽. 또한 [www.lds.org/training/wwlt/2013/hastening](http://www.lds.org/training/wwlt/2013/hastening) 참조.

## 가족 역사는 처음이신가요?

가족 역사에 매진하고 조상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도움으로써 침례 때 느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FamilySearch.org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출생 및 사망 날짜와 함께 기입하여 가계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와드나 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들이, 조상을 찾고 인구 조사 자료 및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포함한 조상의 정보를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모으면, 돌아가신 친척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며

선교사와 토론을 한 후, 복음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복음의 참됨을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상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제게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조상들은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세기만에 후손 하나가 그들을 찾아 자유를 주겠다는 성약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sup>1</sup>

스티븐 이 네이보, 1979년에 미국 유타에서 침례 받음

우리의 첫 아이인 신시아 마리가 생후 4개월에 이분척추(선천성 척추 결함—역주)로 인한 합병증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 로라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젊은 엄마 아빠인 저희는 비탄에 잠겼고, 언젠가

다시 딸과 함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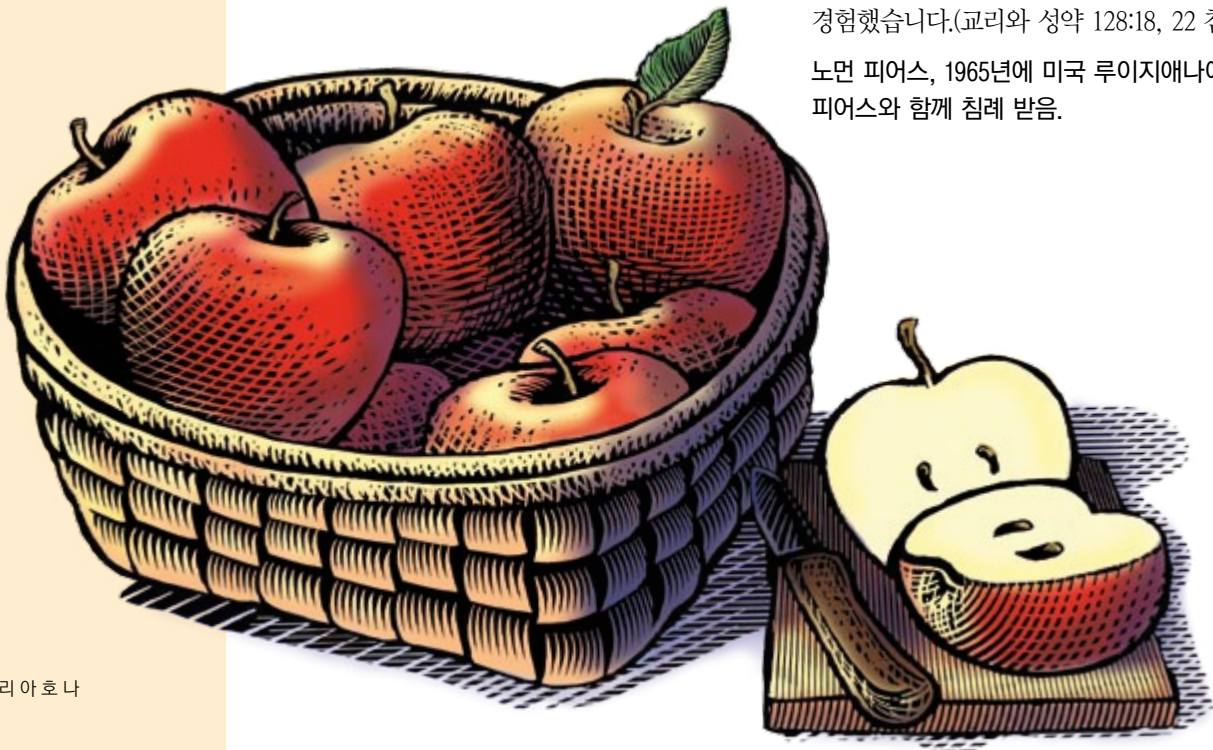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로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젠가는 제 딸을 다시 만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보여 주옵소서.”

그 순간,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두 선교사가 서 있었습니다. 결국 로라와 저는 물문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로라는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15년간 로라는 성전 의식을 위해 이름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라는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저는 혼자서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로라는 관절염과 오래도록 싸우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린 딸과 함께할 방법을 찾다가 사랑하는 수천 명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8, 22 참조)

노먼 피어스, 1965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로라 피어스와 함께 침례 받음.



## 교회 모임에 참여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공과 시간에 의견을 발표하고, 성찬식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당사자와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 성신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시거나 누군가의 약점을 강하게 하시거나 누군가의 의심을 털어 주시기 위해 경전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감독님께서 침례 후에 제게 성찬식에서 간증을 나누도록 요청하셨을 때, 저는 두려웠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청중 앞에서 말을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저는 감독님께 그렇게 여쭙었습니다.

“그럼요!” 감독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회복된 복음을 찾도록 도와주심으로써,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언단에 섰을 때, 성신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회원이 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다음 달에도 성찬식에서 말씀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왜 복음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신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영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침례를 받고 제 죄가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셨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파멜라 사리,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침례 받음

##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 부름은 복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부름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에 터볼라, 2008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침례 받음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동정심을 느끼고 이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자신을 영원토록 변화시킬 겸손과 사랑을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포도원 전역에서 친절이 실천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봉사가 필요합니다.<sup>2</sup>

체릴 앨런, 1980년에 미국 미시간에서 침례 받음

침례를 받자 지부 회장님은 곧바로 제게 청남 회장 부름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 일은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동시에

저는 배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받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sup>3</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교회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게르마노 로페즈, 2004년에 브라질에서 침례 받음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로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0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03~124쪽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가정 복음 교육-하나의 성역”,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6쪽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참조.







# 신권 정원회의

## 영적인 힘을 확립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신권 정원회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얼**마 전에 칠십인의 폴 브이 존슨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칠레에서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존슨 장로님은 스테이크 회장단을 재조직하기 위해 산티아고에 있는 자택에서 1,450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분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전화 통화에서 존슨 자매님은 계단에서 떨어져 슬개골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님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수술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스테이크를 재조직하고 스테이크 대회를 주관하는 임무를 잘 마치고 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마음을 가라앉힌 존슨 장로님은 곧바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정원회 지도자에게 이메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임무를 계속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슨 장로님의 대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상황을 정원회 지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는 정원회의 명예 회원에 대한 애정 어린 보살핌을 포함하여, 일원 개개인이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청지기 임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가도록 임무 지명을 받기 때문에 정원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이메일, 문자, 기타 전자 수단을 사용해 연락하고 지냅니다. 각 회원은 개인 또는 가족 신상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면 정원회 지도자에게 곧바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존슨 장로님은 바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존슨 장로님의 신권 지도자는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님이었으며, 코스타 장로님은 당시 칠십인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슨 장로님은 현지 지도자들과 접견을 하던 중에 코스타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스타 장로님은 존슨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떤 연유로 아내가 괜찮다고 판단했으며 스테이크 재조직을 마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존슨 장로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코스타 장로님은 존슨 장로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론 또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모든 회원을 아우를 때, 형제애의 힘과 영이 발전합니다.

받는다고 느끼며, 그러한 배려 뒤에는 큰 신앙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정원회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장로정원회 회장단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면, 제가 한 이 경험 때문에 더 좋은 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칠십인 형제님들 사이에서 보는 단합과 사랑은 모든 신권 정원회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본보기를 따른다면, 교회 내의 모든 정원회와 회원들은 크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 정원회 힘의 원천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는 큰 힘이 있거나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신 권세에 근간을 두며, 회원 개개인의 간증과 힘,

영혼을 다하는 헌신으로 구현됩니다.

그 힘은 위대한 결실을 만듭니다. 정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각자 더욱 공고해지며, 더욱 유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그러한 시너지가 작용하여, 주님의 교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형제애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그분의 깊은 성찰을 담아 전해 주신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원회의 힘은 정원회에 속해 있는 신권 소유자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은 구성원들의 나이나 성숙도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회의 힘은 그 구성원들이 의로움 안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sup>1</sup>

정원회 회원들이 의로움 안에서 단합할 때, 하늘의 권능이 막힘 없이 그들의 삶으로 흘러들 것이며, 서로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지역 사회에 펼치는 봉사 안에서 그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72년 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셨던 스티븐 엘리차즈 장로님은 정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첫째: 학급, 둘째: 사고 단체, 셋째: 봉사 조직”<sup>2</sup> 그 뛰어난 정의는 질십인

약 2시간 후, 코스타 장로님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정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은 존슨 장로님이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슨 장로님은 공항에 가면 비행기 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칼로스 에이지 아마도 장로님이 스테이크 재조직을 위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존슨 장로님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존슨 자매님은 의료진이 구사하는 언어로 말을 하지 못했기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정원회 지도자들의 영감 어린, 형제애에서 우러나온 배려로 존슨 장로님은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존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원회에서 보살핌을

정원회를 통해 확실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 학급으로서의 정원회

매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칠십인들은 교회 본부에서 정원회 모임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2)는 교리와 성약 88편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교리와 관례, 정책을 돌아가면서 서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임은 영감을 받고 형제애가 강화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동지애와 상호 지원, 사랑의 분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모임입니다. 칠십인의 모든 일원이 참석할 수는 없으므로, 모임은 녹화되어 교회 본부에서 떨어진 곳에서 봉사하는 일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저희 정원회 형제인 돈 알 클라크 장로님은 이 모임을 “교리와 적용의 영적 향연”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해외의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회장단 모임에서 매주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가 고심해야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케빈 알 던킨 장로님은 녹화된 정원회 모임, 또한 칠십인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와 정원회 형제들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 봉사하든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론 또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모든 회원을 아우를 때, 정원회 회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다양한 통찰을 나눔으로써 형제애의 힘과 영이 발전할 것입니다. 많은 정원회에서 여러 교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좋은 관행입니다.

교회의 모든 정원회 지도자들은 칠십인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아우를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집에만 있거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대제사에게 전화 한 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회 형제가 전화를 걸어 정원회 모임에서 토론된 내용을 나눈다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기술을 사용하면, 그러한 나눔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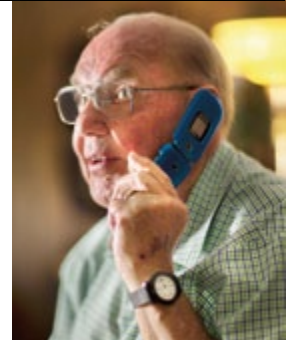
### 사교 단체로서의 정원회

정원회 모임은 또한 다루는 의제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살피고 형제애를 키우는 데 더 훌륭히 사용될 수도 있을 시간을 너무나 자주 정원회 사무를 보고 발표를 하는 데 허비합니다. 효과적인 정원회 의제는 리차즈 장로님의 정의에서 언급되었던 가르침과 형제애, 봉사,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회는 이메일로 회의록과 공지 사항을 나눕니다. 우리 회장단 모임에서 주된 의제로 삼는 첫 번째 사항은 정원회 회원들의 복리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현임 또는 해임된 정원회 회원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제는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정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아우를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현명한 정원회 지도자라면 교리, 형제애를 키우는 일, 그리고 정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것으로 조정될 때가 많습니다.

정원회 사무와 봉사 지명은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만, 현명한 정원회 지도자라면 날짜나 광고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유인물로 나눠 주는 것으로) 시간을 적게 들이고, 그보다는 교리, 형제애를 키우는 일, 그리고 정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사교 단체로서 세상에 신권 정원회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대에 한 사람을 선별된 조직에 지명할 때, 위임장에는 언제나 라틴어로 조직의 책임을 기술하고, 일원이 누구인지 명시한 후, *quorum vos unum*이란 문구가 예외 없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sup>3</sup>

하나님의 영만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의 영향 아래서, 정원회 회원들의 의로움과 서로를 염려하는 정신으로 고무될 때, 정원회는 정원회 회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건대, 사회적 교류는 중요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원회는 가끔 사회적 활동으로 만나서 정원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느긋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목은 형제애를 키우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봉사 조직으로서의 정원회

신권 정원회의 형제애는 정원회가 제공하는

봉사에 여러모로 힘을 실어 줍니다. 신권 정원회가 형제애와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일한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폴 장로님과 질 존슨 자매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 하나와 한 어린 손자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존슨 장로님이 소속된 정원회 회원들의 기도와 금식으로 기적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권 정원회의 충실한 봉사를 통해 교회와 교회 단위 조직에 있는 지역 사회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정원회 회원들이 의로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안에서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그러한 봉사는 강력해집니다.

그런 힘과 사랑은 희생의 대가로 그 희생의 상당 부분을 칠십인의 아내 분들이 치룹니다만, 얻게 되는 것임을 저는 자주 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봉사하던 클라우디오 장로님과 마가레타 코스타 자매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저녁 식사를 마친 이 코스타 부부는 손자 손녀들과 온라인으로 화상 대화를 했습니다. 코스타 장로님이 저를 위해 통역을 해주셨는데, 손주들은 코스타 자매님을 “컴퓨터 할머니”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두 살과 네 살인 두 아이가 코스타 자매님을 안으려고 컴퓨터 모니터를 꼭 껴안았습니다. 코스타 자매님은 손주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컴퓨터 속에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녀와 손주들 가까이에 있지 못하는 것은 특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칠십인의 아내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남편의 부름이 자신에게도 부여되었다고 느끼기에 봉사에 매진합니다.

던컨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상당한 이바지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감내하여 남편을 도울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영감에 따라 회원 및 지도자들과 교류합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기쁨에 찬 헌납의 참된 표상입니다.”

칠십인과 그 부인이 이루는 이러한 단합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본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고 당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 계셨던 최윤환 장로님, 구분경 자매님 내외와 동행해서 여러 도시를 방문한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국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알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간 재촉하자 구 자매님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후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몇 가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꼭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권 봉사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sup>4</sup>

참으로, 참된 형제에는 경건의 척도입니다. 그 이상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신성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일 것입니다. 경전에서 그분들을 하나라고 지칭할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사랑과 영적인 권능과 지식으로 단합하십니다.(요한복음 17:21~23, 니파이후서 31:21, 제3니파이 11:27~36 참조) 주님께서는 모사이야서에서 섬세하게 표현된,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도록]”(모사이야서 18:21) 하는 그러한 단합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신권 정원회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정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형제 개개인에게 다가와 그와 그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알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원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론하기 위해 매달 특정 일요일을 지정한다면, 이 필수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사항에 대해 알게 되면, 정원회 회원들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방법들을 찾고 하늘의 권능을 더욱 풍성하게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신권 정원회의 영적인 힘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

정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헨리 비 아이어링의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8쪽을 참조한다.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 정원회”,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3쪽.
2. Stephen L Richards, Conference Report, Oct. 1938, 118.
3. Boyd K. Packer, “The Quorum”, A Royal Priesthood (Melchizedek Priesthood personal study guide, 1975~76), 131.
4.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7쪽.

## 칠십인: 봉사의 유산

칠십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선지자를 돕는 신권 부름이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압도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장로] 중에 …… 칠십 명을 모[으라] ……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민수기 11:16~17)

후에 필멸의 성역 중에 구주께서는 “따로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누가복음



10:1)

오늘날 주님께서는 다시 칠십인을 부르셔서 “십이사도[의] ……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게]”(교리와 성약 107:34) 하셨습니다.

칠십인은 일곱 명의 회장이 감리한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필요한 만큼 칠십인을 부를 수 있다고 시사하셨다. (교리와 성약 107:93~96 참조)

## 빗속에서의 1분 30초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걱정을 사지 않는 아이였다. 나는 언제나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냈다. 여러 신권 정원회에서 회장을 맡았었고 세미나리에서 반장도 했다. 청소년 대회며 성전 방문, 스카우트 행사, 상호향상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복음에 대한 간증도 있었다. 그러나 제사 정원회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나는 어려움을 겪었다.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지 않았다.

제사 정원회에 들어가고 처음 몇 주와 몇 달간은 언제나 해 왔던 것처럼 교회며 상호향상회, 스카우트 활동에 나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겨워했다.

내가 그곳의 일원이라거나 친구들이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과연 그곳에 있고 싶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활동적으로 지냈고 말없이 아픔을 겪으면서,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 줄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바랐다.

내 첫 번째 자동차인 1967년산 포드 머스탱 수리를 아버지와 함께 막 끝냈을 때였다. 청남 회장인 스테이 형제님은 이따금 내 자동차에 대해 물어보셨다. 나는 그분의 관심이 한 명의 청소년이 아닌 클래식 자동차를 향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상호향상회를 마친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가 쏟아지자 스테이 형제님은 모두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우리집이었다. 형제님은 진입로에 주차된 파란색 머스탱을 보시고는 다시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셨다. 나는 형제님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수리한 엔진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사실 스테이 형제님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었고,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형제님은 어두운 빗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엔진을 들여다봐 주셨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이 클래식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빗속에서 있었던 그 1분 30초 동안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찾았다. 내가 환영받는다라는 기분을 느낀 것이다. 나의 은밀한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다.

그 이후 나는 성전에 가고, 선교 사업도 나갔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약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스테이 형제님은 그 순간을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누구나 힘든 부분이 하나씩은 있지만, 우리는 매일 1분 30초 동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 한 명에게 사랑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조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이슨 보센, 미국 유타

사실 스테이 형제님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어두운 빗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엔진을 들여다봐 주셨다.



##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

**끔** 짝한 화재로 집을 잃은 우리 여덟 식구는 앞마당에 있는 방 3개짜리 이동식 주택에서 잠시 살아야 했던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화를 겪었다.

당시 남편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었다. 십 대인 두 아들은 그들을 슬픔으로 끌어들이 일들을 선택했다. 나는 워드에서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여러 청녀들이 심각한 유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중대한 시기에 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

청녀들이 영적 지뢰밭을 건너려면 내 도움이 필요했다. 내 여섯 아들들 역시 나를 필요로 했다. 착한 남편은 내 힘에 의지하고 있었다. 주위에 온통 어둠뿐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약한 존재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적막한 우리의 임시 거처에서 젖먹이 아들을 흔들며 달래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을 둘러싼 어둠이 느껴졌다. 나는 비통함 속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며,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도울 길을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을 주셨고 길을 보여 주셨다.

워드의 널찍한 활동실에 있는 내가 보았다. 그곳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아주 늦은 밤이었고, 어떠한 불빛도 없었다. 그때 나는 작은 생일 초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은 정말 작디 작은 것이었지만,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그렇게 응답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많은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빛은 영원하며 어둠보다 훨씬 강력하다.(고린도후서 4:6; 모사이야서 16:9; 교리와 성약 14:9 참조) 합당하여 성신과 늘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많은 어둠이라도 몰아내기에 충분한 빛을 비출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에 이끌려 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알고 싶었던 전부였다. 이 간단한 통찰 덕분에, 지난 25년간 주님의 도움과 인도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해야 하고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될 수 있었다. ■ 수잔 와이먼, 미국 조지아



**어**느 늦은 밤, 나는 적막한 우리의 임시 거처에서 젖먹이 아들을 흔들며 달래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교** 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새신부였던 시절에 나는 남편을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었다. 학창 시절에 영어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강한 일본어 억양 때문에 내가 하는 영어를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고, 나는 영국식 발음을 알아듣는 것이 어려웠다.

남편과 나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결혼할 당시에 우리는 완전히 개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나 모임을 모두 다 참석하지 않은 채 성찬식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다. 또한 어떠한 교회 부름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교회 활동에 좀 더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한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매님은 다음 주 중에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나에게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러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 만한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전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모임에 갔을 때,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탁자 보와 꽃으로 꾸민 탁자 세 개가 놓여 있었다. 위에는 “자매들을 알아봅시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탁자에 “터켓 자매”란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나는 탁자 위에 놓을 물건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눈에 고이는 눈물을 애써 감춰야 했다.

성찬식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미 서러움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생각도 자주 했다.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렇기에 상호부조회 모임에 와서 내 실수를 깨달았을 때에는, 더는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든 숨고 싶었지만, 준비해 온 게 없다는 이야기를 상호부조회 지도자에게 말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했다.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탁자에 놓을 만한 물건을 아무것도 안 가져 왔어요.”

그러자 그 자매님은 나를 더없이 상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리고는 나를 안아 주셨다.

나는 위로를 받았고, 그 자매님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영이 속삭여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나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그 자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느끼고 나서 나는 곧바로 마음을 바꾸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것처럼 사랑하시고 교회에 오기를 바라신다면, 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 이후, 남편과 나는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또한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 점차 영어를 더 잘 알아듣게 되었고 말하는 법도 배웠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해 준 그 자매님께 감사드린다.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일본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지방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통역사로 봉사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 왔다. ■

테루미 터켓 (질 캠프벨과 함께), 일본

**상** 호부조회 지도자가 나를 안아주었을 때 위로가 되었다.





## 내 신앙을 위해

**대** 학교 1학년 때, 나는 내 대학 생활이 전처럼 보호된 삶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몸에 해롭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띄게 될 것이었다. 내가 교회 회원인 것이 알려질 때 받게 될 비판이 두려워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회피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젊은이들이 지속적인 차별 속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하게 하셨다. 내 뒤에 앉은 여학생은 물론이 떠오른다고 발표했다. 우리 교회가 화제에 오르면 대체로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움츠러들었다.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에 혹시 후기 성도가 있느냐고 물으셨다. 깜짝 놀란 나는 교실을 둘러보았는데, 다른 학생들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책상 위에 편히 올려 놓았던 내 손을 들어 올렸다. 교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수님은 “한 명이 있군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긴 침묵이 흐른 후, 후기 성도는 기독교인인가 하는 논쟁에 대답하도록 요청받았다. 생소한 질문은 아니었기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25:26)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독교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멈췄지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구주께서 내 곁에 앉으시어 내 손을 잡아 주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 올랐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더 강해졌다. 나는 내 신앙을 옹호했다.

후기 성도가 왜 기독교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했다. 그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버스 안에서 복음을

나누셨던 일화가 생각났다. 그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몬슨 회장은 회원들에게 “용기를 갖고 우리가 믿는 것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격려하셨었다. 몬슨 회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내가 해냈음을 깨달았다.

내가 한 발표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꿨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던 복음을 옹호하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령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

칼리나 피터슨, 미국 아이다호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67쪽.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책상 위에 편히 올려 놓았던 내 손을 들어 올렸다. 교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은 배우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가?  
다음 세 가지 대화  
유형을 이해하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말한다, 듣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크 오글트리

**나**는 결혼 및 가족 상담자로서 부부 관계를 바로잡고 강화하기 위해 부부들을 자주 만난다. 한 번은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그들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눠 본 후, 나는 그가 실제로는 의사소통에 능숙한 사람이지만 아내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나는 건강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배웠다.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더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게 대화한다면,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다음은 관계에서 각자가 의사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결혼 및 자녀 양육 전문가이자 교회 회원인 더글라스 이 브린리 박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세 단계, 즉 피상적 의사소통, 개인적 의사소통, 인정하기에 대해 저술한 바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깊은 유대가 형성되려면, 이 세 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sup>1</sup>

**피상적 의사소통**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정보를 나누고, 대립을 만들지 않으며,

위험 요소가 적다. 부부들은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날씨, 유류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수준에 해당하는 대화를 어느 정도씩은 나눈다. 이러한 대화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대부분이 이 수준에 머문다면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하며, 서로가 결속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

피상적인 의사소통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대체할 수도 있다. 부부가 논의해야 할 깊은 문제를 피하면서 변죽만 울린다면, 갈등을 해결하거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 중요한 것에 대해 논의할 때 부부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피상적인 수준에 국한시킴으로써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부부를 보아 왔다. 그들은 “너 중한”(마태복음 23:23)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다.

**개인적 의사소통**

개인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관심사와 꿈, 열정, 믿음, 목표 등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의 유대감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의사소통이란 감정과 느낌, 염려 등을 현명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sup>2</sup>

아마 당신은 데이트할 때 이 수준의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이 수준의 의사소통을 나눈다. 중요한 것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과 배우자는 서로 감사하고, 원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표현하는 등 배우자가 나누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때,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다음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

**인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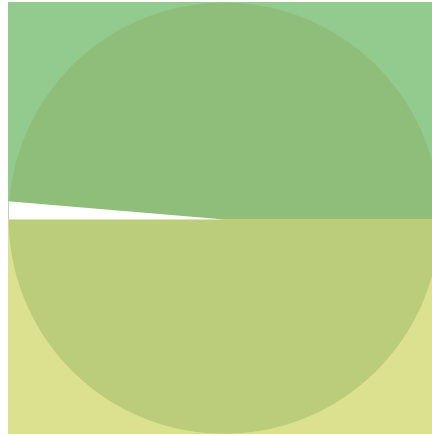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보살피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이 있다.<sup>3</sup> 결혼 전문가인 샌드라 블레이크스리와 주디스 에스 월러스타인은 이같이 기술했다. “서로 보살피고, 활력을 불어넣을 안식을 제공하지 않는 결혼은 정서적인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 있다.”<sup>4</sup> 서로 인정하면서 나누는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을 고양하고, 치유하며, 보살피고, 칭찬할 수 있다. 이 수준의 의사소통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찬사를 보낸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서로를 인정하면, 거의 모든 인간 관계는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인정하기는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며, 여기에는 서로 고양하고 치유하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포함된다. 배우자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사진 출처: 데이버트 스토키

부부들을 상담할 때 나는 칠판에 원을 그린 후 피상적, 개인적, 인정 수준의 의사소통에 각각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원 그래프로 그려 보게 한다.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부부 대부분은 피상적인 대화에 그들의 시간 중 50퍼센트 가까이를 소요하며, 인정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은 5퍼센트도 못 되었다. 바람직한 균형은 피상적인 대화에 25퍼센트, 개인적인 대화에 50퍼센트, 인정을 보여 주는 대화에 25퍼센트를 할애하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의사소통



건강한 의사소통



**열쇠**

- 개인적
- 피상적
- 인정

말해 준다. 배우자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귀를 기울이고 위로함으로써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 “종일 그렇게 힘들었다니, 어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야기해 줘요.” 또는 “이제 남은 시간을 즐겁게 지냅시다. 내가 뭘 해 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루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충분히 똑똑하고 성실하잖아요.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말은 여러분이 배우자의 고충을 측은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배우자의 감정, 두려움, 생각, 염려 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감사와 사랑, 존경을 전할 수 있다.<sup>5</sup>

**경청하는 기법을 실행한다**

가장 훌륭한 소통 기법은 효과적인 경청을 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너그러운 행위 중 하나는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더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것은 곧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청은 존경과 인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경청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 생활에서 경청의 목표는 정보

습득이 아닌 이해를 하기 위함이다. 진정으로 배우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을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남편과 아내를 “경청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 경청”<sup>6</sup>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효과적으로 경청한다면, 자신의 뜻과 자존심을 제쳐 놓고 배우자와 영혼 대 영혼으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시간을 내어 배우자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이 결혼 동반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하십시오.”<sup>7</sup> 아무런 방해 없이 대화를 나눌 시간을 낸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행을 유지하며,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말을 끊지 말아야 한다.

### 비언어 신호

의사소통에서 때로 간과되기도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비언어적인 소통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몸짓 언어 또한 중요하다. 배우자가 말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가? 직장에서 힘들었다는 남편의 말에 통한 표정을 짓지는 않는가? 당신의 표정에 관심과 진지함이 묻어나는가, 아니면 따분함과 짜증뿐인가? 신체적인 애정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때로는 말보다는 껴안거나 웃는 표정이 사랑을 더 잘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 기삿거리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 등 어떤 유형의 대화를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몸짓 언어는 상대방을 더 인정해 주고 관계를 결속시킨다.

### 구주의 소통 방식을 본받는다

배우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도록 한다. 주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에는 사랑과 관심, 염려하는 마음을 보이셨다.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순수한 사랑을 보이셨다. 또한 연민을 보이시고 용서해 주셨다. 주님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사랑을 보이셨다. 관계를 향상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고양하고 함양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부부들을 만날 때 나는 자주 그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고, 향상시키라는 요청을 한다. 의미 있는 대화의 원칙을 그들의 관계에 적용하여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 왔다.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열쇠는 배우자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애정과 존경을 보여 주는 것에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1. Douglas E. Brinley and Mark D. Ogletree, *First Comes Love* (2002), 123~126 참조.
2. 마빈 제이 에쉬튼, “가족간의 대화”,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52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4. Sandra Blakeslee and Judith S. Wallerstein, *The Good Marriage: How and Why Love Lasts*(1995), 240.
5. Douglas E. Brinley, *Strengthening Your Marriage and Family*(1994), 153~154.
6. 러셀 엠 벨슨,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23쪽.
7. 조 제이 크리스텐슨,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결혼”,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4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23~24쪽.

##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사소통 원리를 결혼 생활에 적용할 때,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도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고자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피상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한다. 의무적으로 기도하거나 습관적인 문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많은 말로 그분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늘어놓는 기도로 주님을 지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도 없이 흔히 하는 상투적인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sup>8</sup>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의 믿음과 느낌,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가? 마음 깊숙이 감춰 둔 열망을 그분과 나누어 왔는가? 여러분은 그분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귀 기울이는가?

진지한 말로 겸손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실행에 옮긴다면,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도 굳건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디  
헤일츠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전 축복

성전에서 집행되는 구원 의식은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 전 엔다우먼트의 축복은 우리 각자에게 침례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전 사업은 우리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산 자를 위한 성약을 맺으며, 이와 똑같은 의식을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해 수행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신성한 성전 의식과 성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생활을 정비하라는 가르침을 경전에서 받는 이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신성한 성약을 맺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개인적인 합당성은 우리가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성약을 맺은 다음, 우리가 순종하여 매일 성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 사랑, 헌신, 영적 결심을 나타내며, 영원히 그 성약대로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구원 의식은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핵심이기도 합니다.

### 거룩한 성전

우리는 주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간증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진실로 우리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생각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은 그 근심을 성전에 가져가서 영적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성전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려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영을 초대하려면, 부정간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경건은 영이 매일 매시간 그 안에 머물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친은 저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 주위를 함께 걷고, 성전을 만져 보며 제 인생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을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전은 신성한 건물이며, 승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원 의식들이 집행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맺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각각 나타나 그들의 경륜의 시대에 보유했던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가 약속한 대로 그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회복하여 우리가 이 생에서 성전의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나부 성전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이 행해진 첫 번째 후기 성도 성전으로,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밸리의 시온으로 오기 위해 평원을 횡단하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테지 감옥에 갇혔을 때, 조셉 스미스는 성전 완공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게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맺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역사상의 성전 축복들

역사적으로, 경륜의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세워 그분의 백성들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은 이 후기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었으며, 그곳은 신권 열쇠가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커틀랜드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모세,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고, 그들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권능, 곧 신권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은 나무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나무 성전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렇듯, 그들이 서부로 여행하는 동안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일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초기 성도들에게 성전 의식 참여는 그들이 고난을 겪고, 분노한 폭도들이 집에 들이닥쳐, 나무의 편안한 집에서

쫓겨나고, 앞에 놓인 기나긴 고된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간증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기록한 성전에서 그들에게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봉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주께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영원히 인봉되었습니다.

### 성전 의식—엔다우먼트와 인봉

성전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배움의 전당으로, 우리에게 세상 창조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 줍니다. 씻음과 기름부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줍니다. 엔다우먼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97:13~14 참조)

성전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주께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엔다우먼트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구주를 따르며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맺는 일련의 성약들로 구성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은 영원한 인봉을 하는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 이 성약으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인봉되고,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네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말로써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네가 땅에서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32:46)

한 쌍의 남녀가 제단 앞에 무릎 꿇을 때, 인봉자인 저는 주님의 대표자로서 제가 맡은 역할을 인식합니다. 저는 지상에서 인봉된 것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도 인봉되며, 인봉되는 그들이 충실하게 남아 끝까지 견디다면, 결코 그 인봉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성전 인봉실의 양쪽 벽에 서로 마주 보게 걸려 있는 거울은 끝이 없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봉실의 한쪽 벽에 있는 이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위해 여행한 시간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끝없는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인봉실 자체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 기간을 나타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필멸의 생을 경험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과,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 생의 시험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나와 이 생의 시험대에 선택의지를 갖고 왔으며,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니파이후서 2:11)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니파이전서 15:14 참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의



모든 불화살”(교리와 성약 3:8)을 영의 칼과 신앙의 방패로 막으며(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분들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 곧 영생이라 불리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권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

성전 의식과 성약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시련과 고통의  
보호막입니다.

2005년 11월 1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성전 축복”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 “성전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제 삶의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가** 능한 한 자주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 해도, 성전을 여러분의 삶의 더 큰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표준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면전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결혼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중요한 의식들을 받을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정숙한 복장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전에 관한 경전 구절을 공부하십시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6~29장; 레위기 8장; 교리와 성약 97편; 109편; 110편; 124:25~42; 모세서 2~5장) 또한 2010년 10월호 *리아호나*는 전체가 다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신의 조상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FamilySearch.org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진실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 **여러분의 집을 성전처럼 만드십시오.**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시오.]”(교리와 성약 109:8)

이 아이디어 중 한두 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이번 달에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을 느끼고 성전에 관해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성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생각하십시오.



성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받게 되는 축복과 우리가 언제 성전에 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뿐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이름을 갖고 가거나 금식함으로써 성전 방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느끼는 영은 특별합니다. 최대한 의미 있는 방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벤자민 에스, 18세, 미국 유타

### 순결함과 합당성을 유지하세요



성전 덕분에 지금 제 삶은 행복합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저의 영성을 강화하고 개선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전은 시련과 유혹에 대처할 용기를 주고 제 약점을 극복하도록 힘을 줍니다. 성전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므로, 저는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고 순결함과 합당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미카엘라 비, 16세, 필리핀

### 성전의 영을 유지하세요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 가려면 일곱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1년에 두 번씩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간 머뭙니다. 성전에 갈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성전의 영을 유지합니다. 저는 제 성전 추천서를 책갈피로 사용합니다. 추천서를 볼 때마다 제가 성전에 참석하기에 합당하지 자문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더 힘을

연고 영을 느낍니다. 성전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리스 지, 17세, 프랑스

###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진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기만 한다면, 1년에 두세 차례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전 방문을 계획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준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큰 기쁨을 느끼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지만, 선지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간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타 엘, 16세, 파라과이

### 성전 사진을 걸어 놓으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성전 사진에다 “언젠가 갈 거야!”라는 글을 써서 액자에 넣으세요. 매일 볼 수 있도록 방에 걸어 놓으세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 목록을 사진 옆에 붙이세요.

크리스천 제이, 13세, 미국 아이다호

### 성전을 방문했을 때 기록한 일지를 다시 읽어 보세요.

성전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일지에 적고 집에서 읽으세요. 그때의 느낌들을 기억나게 해 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기록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전에 참여할 때,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전 사업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동안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은 훨씬 더 가치있게 여기게 되고 성전은 제 삶에서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올가 지, 18세, 벨라루스

### 가족 역사를 조사하십시오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것은 성전에 있지는 않지만 성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은 이름을 가족이나 와드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집을 거룩한 장소로 만든다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성전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케이틀린 비, 13세, 미국 유타



###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의 우리 목표 중 하나가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권 지도자 앞에 앉아,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승인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 명백한 증표를 갖는 데에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항상 그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 질문들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사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항상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고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My First Temple Recommend,” *New Era*, Apr. 2013, 4.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번 호 52쪽에 있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성전 축복”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질문

“최근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4년 3월 15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3쪽의 주소 참조)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 충실하고, 사랑 넘치는 봉사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성신을 초대하고 화평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서 만난 새 친구에게 자기 셔츠를 준 엘리아라는 소년의 이 사진에서 순수하고 이타적인 봉사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엘리아는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 엘리아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셔츠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면, 누구에게 봉사할지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고리와 성약 42:29)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고리와 성약 59:5)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모사이야서 18:10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거기에는 봉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봉사: 복음의 실천

봉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인데, 제가 좋아하는 브리검 영의 이야기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손수레 개척자들이

평원에서 걷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 회장님은 185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간단한 설교로 설복력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야 할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주제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끌면서 평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1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핵심은 ‘그들을 여기에 데려 오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종교요, 제가 받은 성신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

저는 오늘 감독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캐럴 에프 맥콩키

않겠습니다. 육십 마리의 좋은 노새와 12~15대의 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황소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이곳에 있으며 그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마차를 몰 마부 외에도 밀가루 12톤과 마차를 몰수 있는 사람 40명도 필요합니다. ....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종교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sup>2</sup>

“사람들을 구하라” 그것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아서 2:17)

### 모든 곳에 있는 기회

봉사할 기회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sup>3</sup>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호하기를 원하십니다.(모사이아서 4:26 참조) “이 생에서 .....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그들을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sup>4</sup> 우리는 살아 있는 복음 표준의 모범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나눕니다. 가족 역사를 탐구하며 우리의 조상을 위해 이름을 성전에 가져갑니다. 종종 단순한 웃음, 친절한 인사, 따뜻한 포옹, 또는 감사의 쪽지 같은, 작고 동정심 어린 봉사 행위가 마음을 들어 올리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과 힘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충실하고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성신의 동반을 불러오고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화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59:23)라는 약속을 성취시켜 줍니다. ■

주

1.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706.
2.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Oct. 15, 1856, 252.
3.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6쪽.
4. 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구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10쪽.



# 가정 복귀 용품을 나눠 주며



## 올리버 가상

**차** 디찬 비바람이 몰아쳤다. 나무가 뽑히고 나뭇잎이 모조리 다 떨어졌다. 전선이 망가져 일부 지역은 전기가 나갔다. 내 눈 앞에 유령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사람들은 음식과 안식처를 애타게 찾았다.

나는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과 교회 회원들은 태풍이 수천 채의 가옥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난한 동네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집이 파괴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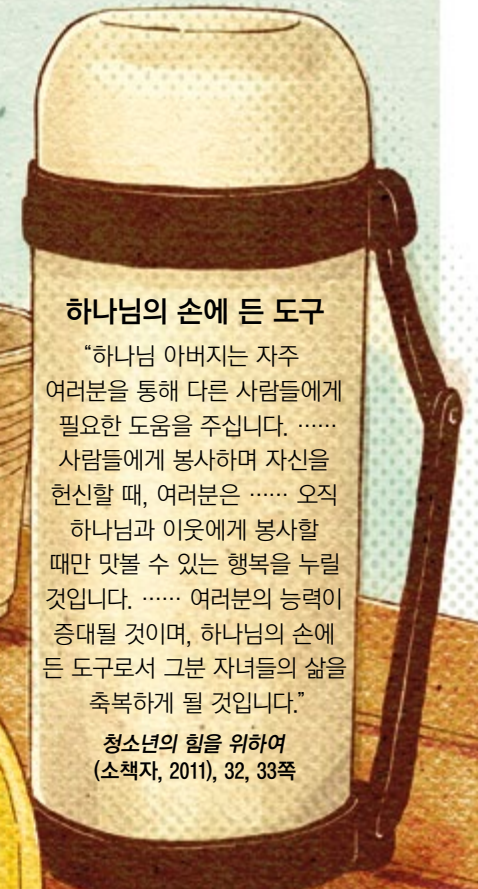
진흙투성이에 지붕도 없는 체육관에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줄 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구호 물품은 플라스틱 쟁반, 주전자, 접시, 숟가락, 포크, 컵, 보온병으로 구성된 것이었고, 우리는 이것에 “가정 복귀 용품”이란 별명을 붙였다. 가족들과 함께 구호 용품을 나눠 주자, 사람들은 따뜻하게 웃어 보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사람들의 소중한 고마움의 표현에 나는 고양되었고,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 그들의 웃음은 희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암흑의 날에 빛을 가져다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면, 영원한 축복을 얻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봉사에 대한 축복이 늘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봉사하면 축복은 올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모사야아서 2:17)임을 안다. ■

글쓴이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산다.



###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하나님 아버지는 자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자신을 헌신할 때, 여러분은 ……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 여러분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로서 그분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11), 32, 33쪽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 생명의 책을 채우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서 쌓아 가고 있는 영원한 기억들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일”이란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라고 합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 하는 추억들에 특히 어떤 원리가 보탬이 되었는지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원리일 것입니다.<sup>1</sup>

우리 모두는 매일 자신의 생명의 책을 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록의 책장들을 다시 볼 때, 어떤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얼마나 많은 면에 “내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일”이 실려 있습니까? 특별한 기회를 미루고 잡지 않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족,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사려 깊게 대하지 못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불의함과 불순종의 행위로 후회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매일 깨끗하고 하얀 백지에 인식, 애통, 회개, 보상이란 과정을 통해 “내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일”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로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나 놓친 기회들에 대한 우울한 감정은 명랑, 열정, 삶의 기쁨으로 가득찬 기억들로 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책에 넣은 기념물들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침례 증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성임, 청남을 위한 신권, 청녀를 위한 청녀 표창, 또 전임 선교사에서 명예롭게 해임된다는 편지가 있습니까? 유효한 성전 추천서, 십일조 영수증, 거룩한 성전에서 수행된 결혼, 신권 및 보조 조직 부름을 받아들인 것 등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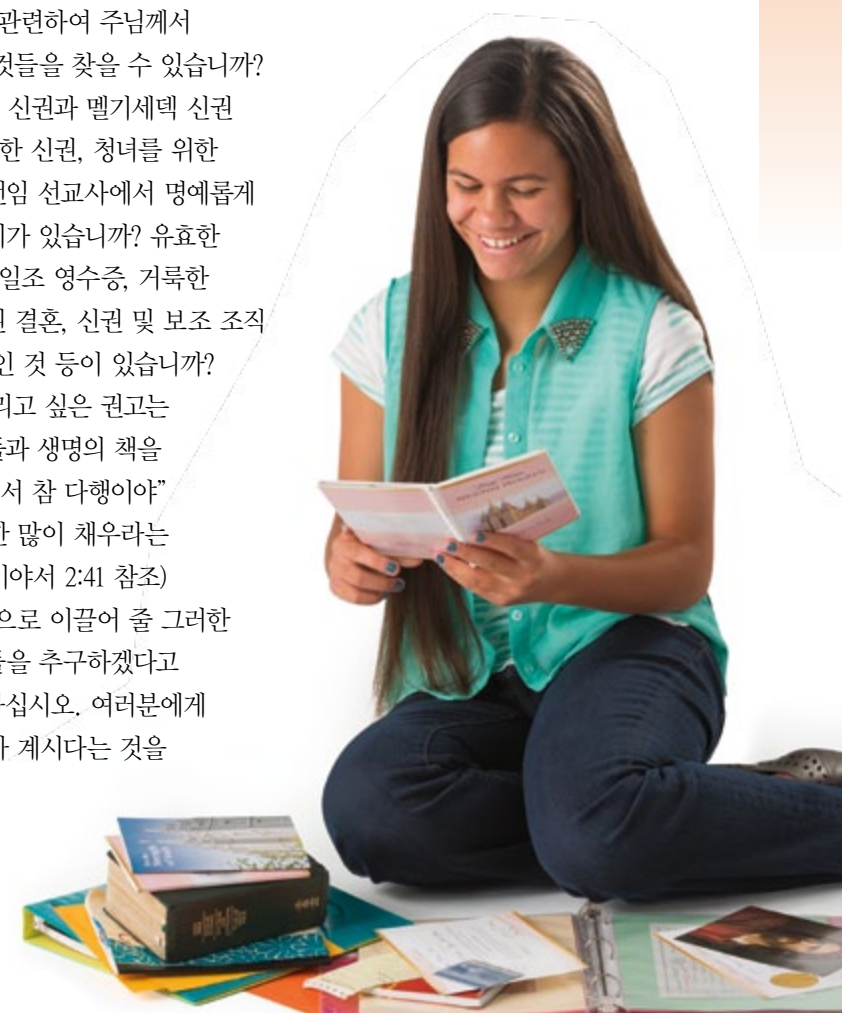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고는 여러분의 기억들과 생명의 책을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 활동으로 최대한 많이 채우라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41 참조)

자유와 영생으로 이끌어 줄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1992년 11월 1일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엘마 이세(모사이야서 27장; 엘마서 29, 36장), 야담과 이브(모세서 5:4~11), 사무엘과 사울(사무엘상 15:9~11, 13~14, 20~24), 니파이(니파이전서 3~5장)의 기사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다. ....

# 선택은 왜 중요한가

민디 레이 프리드먼  
교회 잡지

**여**러분은 매일 선택을 한다. 그 선택 중 일부는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예: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 또 그중 일부는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예: “이 계명을 어겨야 하나?”) 여러분은 때로 “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 결정이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까?” 답은 ‘그렇다’이다! 결정은 정말 중요하다.

##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전제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든 영이 동의하지는 않았다. 루시퍼는 그 계획에 반대했고,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다.”(모세서 4:3) 그 때문에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필멸의 생을 경험하여 진보를 이룩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선택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려는 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 중 하나는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선택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선택의지로 계명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합니다.”<sup>1</sup>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함께 이 생의 시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좋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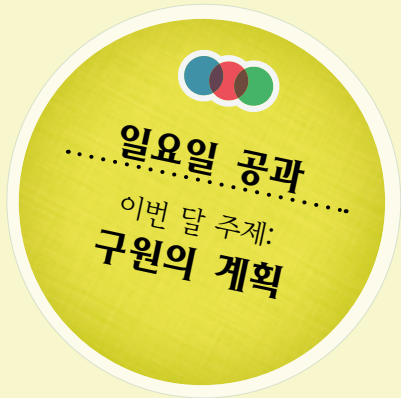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거듭해서 배웠다.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할 때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이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행동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쁜든 여러분이 한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sup>2</sup>

그렇다면 좋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마도 의로운 선택을 할 때 오는 축복을 많이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축복들을 찾아보기 좋은 곳은 경전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이다. 예: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교리와 성약 14:7)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과 가족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영원한 관점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3</sup>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로운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sup>4</sup> 이는 아주 훌륭한 축복들이며, 이 밖에도 더 많은 축복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58:27)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순종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은 아마도 계명을 어기는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겠다는 선택이 여러분의 삶과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구원의 계획에서 선택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여러분의 좋은 선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작은 결정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지금과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들을 나열하여 쓴다.
-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그 목록을 본다.
- 교회, 집, 그리고 youth.lds.org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결과 없이 영원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완전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12쪽 참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하고 있는가?

### 의식적으로 생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 미리 결정을 내려 두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떤 결정은 단 한 번만 내리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수첩에는 지혜의 말씀 지키기, 매일 기도하기, 십일조 내기,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기 등과 같은 결심을 적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모금만 마시는 건데 어때.’ 하고 말했을 때에도 저는 웃으면서 ‘나는 이미 열두 살 때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 결정을 내려 두면 조금 더 쉽게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전 본부 청년 회장, “정결을 지키는 수호자”,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23쪽.

무엇인지 생각한다. 영생을 원하는가?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원하는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건축가가 고층 빌딩을 세울 때 청사진이 필요하듯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목표 중 일부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목록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어라.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목록을 떠올리면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목표를 세워 두면 무작정, 임의대로, 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목표 중 하나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매일 아침 여러분은 새벽반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을 한 시간 더 자기 위해 계속 자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두 선택 중에 어느 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또는 학년 말까지 물문경을 다 읽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은 경전을 읽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이와 같은 선택이 매일 여러분 앞에 놓인다. 목표를 마음에 새기면, 정말로 원하는 것들로 이끌어 줄 결정들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쪽; 강조체 추가.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1쪽.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5쪽.





# 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반나 엠 스미슨

**우** 리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개학 첫날 나는 폴이란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서로 잘 어울려 지냈다. 폴은 참 좋은 친구였다.

다음 날 방과 후, 폴은 내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하자, 폴이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며, 우리는 16세 이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은 왜 그러는지 다시 물었고, 그때서야 나는 나 자신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폴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LDS.org에서

조사를 했고 경전을 읽었다. 나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이 말씀을 찾았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로 서로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받지 않으면 화약고라 될 수도 있습니다. ……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른 데이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sup>1</sup>

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도 찾아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온다. “데이트는 여러분이 사교성을 기르고 우정을 키우며 건전한 오락을 즐기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sup>2</sup>

다음 날 나는 폴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를 보여 주었다. 폴이 소책자를 읽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고, 후기 성도인 내 친구들은 내가 반 친구들의 질문에 답할 때 옆에서 도와주었다. 폴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16세 이전에 데이트 하는 것과 청소년기에 심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도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고 나온다. 엄마도 우리가 16세 이전에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미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공부와 기회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열세 살 때, 이별의 영향으로 우울함에 빠져 버린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16세 이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내어 폴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답해 줄 수 있어서 기뻐다. 나는 좋은 친구가 생겼고, 우리의 우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충실하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주시고 적절한 연령에 데이트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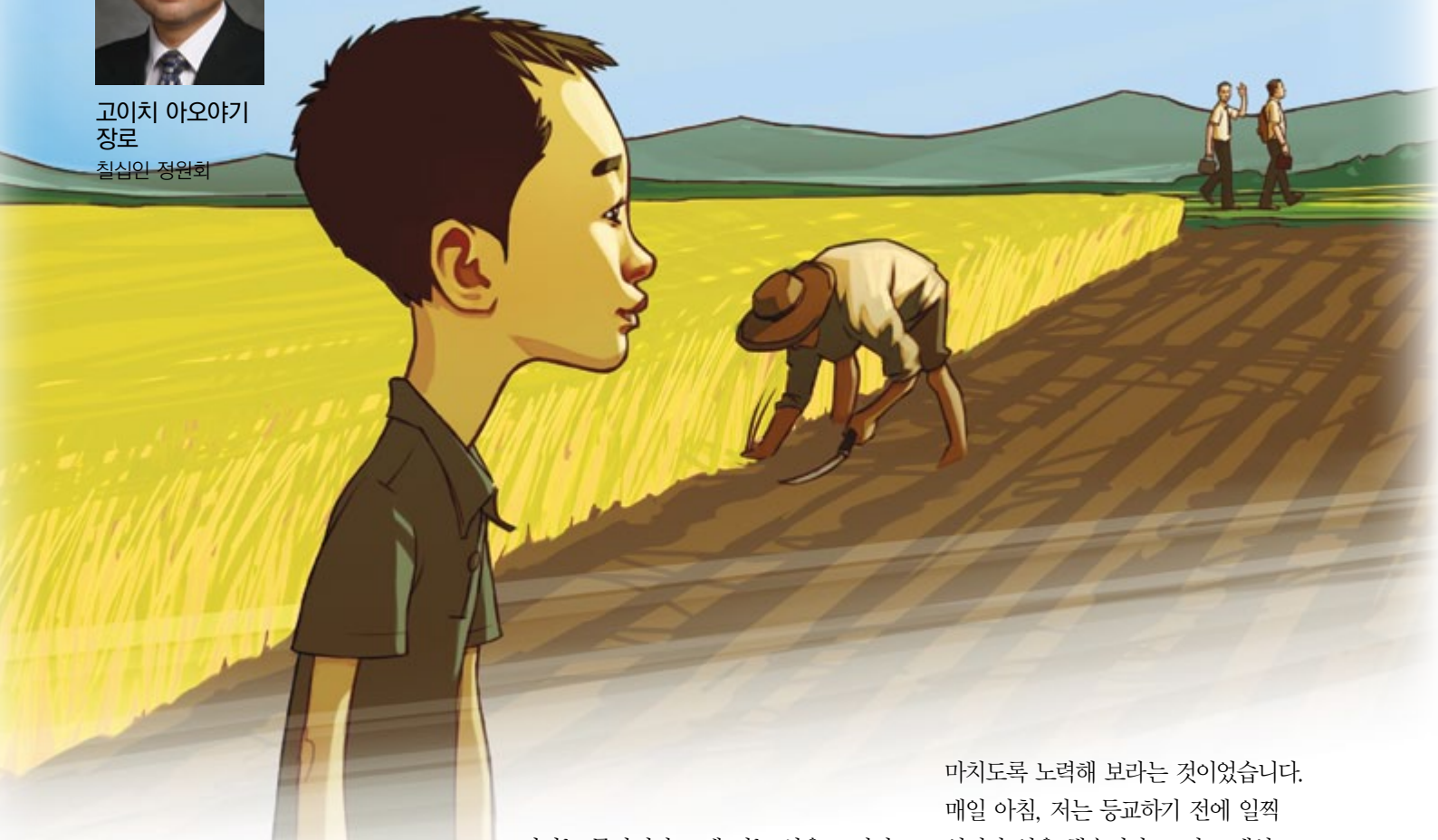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에 산다.

주  
1. “청소년을 위한 선교사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8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4쪽.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추수



성신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 보여 [주십니다.]'  
(니파이후서 32:5)

**스**년 시절, 저는 일본에서 자랐으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수강료는 비쌌고,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료 영어 강습 진단지를 나누어 주는 두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영어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로부터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은 명랑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회에 대해 물었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몰랐지만 그때 저는 영을 느꼈던 것입니다. 곧 저는 침례 받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침례 받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영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침례를 받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10월의 어느 일요일, 저는 교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논에서 추수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영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해 주었습니다. 일요일 전에 추수를

마치도록 노력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등교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하교한 후로는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밤까지 겨우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실망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논에 나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인자한 표정으로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슬플 때나 행복 할 때, 낙담할  
때나 희망에 찰 때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외모나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

# 영원한 친구 나의 가족

친구들이 올리비아를 끼워 주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통이 도움이  
올리비아에게 도움이 될까요?

올리비아 코리  
실화에 근거

“나에겐 가족이 있네 소중한 내  
가족”(“가족은 영원해”, 어린이 노래책, 98쪽)

**버**스에 탄 올리비아는 뒤쪽에  
앉은 여자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것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걸 너희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진짜  
좋다! 그 게임은 가져왔어?”

“가져왔어. 엄마가 팝콘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

올리비아는 읽고 있던  
책을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올리비아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물론,  
올리비아는 두 친구가  
자기에게는 말도 없이  
둘이서만 뭔가를 하려고  
소근거리는 것이 듣기  
거북했습니다.

스테파니, 레베카,  
올리비아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새 학년이  
되어 스테파니와 레베카는 같은 반이  
되었지만, 올리비아는 혼자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두 친구가 반에 나란히 앉아서, 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서글퍼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슬펐습니다.

버스가 레베카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올리비아는 두 친구가 버스에서 내려 앞뜰로 뛰어가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올리비아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올리비아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올리비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끔찍했어요! 레베카와 스테파니는 이제 저하고는 거의 말도 안 해요. 우린 영원한 단짝이어야 하는데 말예요!” 올리비아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속상하겠구나, 올리비아. 우정이 변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인봉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니?” 엄마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비아는 성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일이지만 부모님과 제인 언니와 함께 아름다운 인봉실에 있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아니?”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하고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맞았어. 네가 레베카와 스테파니하고는 영원한 단짝이 되지 못하지만, 가족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네 곁에 있을 거야.”

“맞아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네가 집에 와서 기쁘구나. 너와 제인이 할 일이 있거든.”

올리비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겠단!

“가서 현 옷을 입고 뒷문으로 나오렴. 제인 언니도 부르고.”

올리비아는 평소보다 조금 세계 발을 쿵쾅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두 소녀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엄마가 헛간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초록색 깡통 하나와 붓 몇 개, 돌돌 말린 플라스틱 시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뒷문 앞에 선 엄마는 플라스틱 시트를 내려놓고 두 딸에게 붓을 하나씩 건네셨습니다.

“페인트칠을 시키실 거예요?” 올리비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여쭙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은 아빠가



“우리는 …… 단순한 일들을

함께할 때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 21쪽.**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아.”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페인트칠이 끝났으면 좋겠구나.” 그러고는 뒤로 돌아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소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소녀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초록색 페인트에 붓을 담고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일이 마음에 들었고, 전혀 따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인 언니는 붓을 아래로 길게 내리며 쪽쪽 칠하는 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내 두 소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리비아는 제인 언니와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을 모두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언제나 친구가 되어 줄 거라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 두 소녀는 초록색 페인트로 더러워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반들반들한 초록색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머리를 안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올리비아가 외쳤습니다. “와서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이 드린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봉사라는  
단순한 행위를 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기회를 알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루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9~31쪽에서 발췌.



# 우리들 이야기



숲 속에서 기도하는 조셉 스미스,  
카롤리나 엠, 7세, 브라질



저는 성전에 가서 인봉을 받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사로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니파이전서 6장 5절에서 니파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리스 디, 11세, 아르헨티나



요나는 선지자였다, 브리검 시, 5세, 멕시코



노아의 방주, 이반오에 시, 9세, 멕시코



생명나무, 라쿠엘 시, 7세, 볼리비아



제가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가족 중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권 소유자이시면서 또 감독님이신 아버지께서 제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조나단 엘, 8세, 에라도르



제 삼촌은 과테말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삼촌이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고 있다고 배웠으며, 저도 커서 삼촌처럼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노래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를 좋아합니다.

마누엘 엘, 5세, 엘살바도르



Privet, drooks!\*

저는 러시아에 사는  
**아리나예요**

애미 제인 레빗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여** 러분은 다른 사람과  
간증 나누는 걸  
좋아하나요?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가족, 친구, 교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면 그것도  
간증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친구는 러시아 카잔에 사는  
일곱 살 소녀 아리나입니다.  
아리나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교회가 참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알려 주고 싶다고  
합니다. ■

\* 러시아어로 "안녕, 친구들!"이란 뜻.

저는 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경전을 읽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니파이전서에서 리하이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일은  
침례 받을 준비를 하는 데 좋죠.



나 성전 보고 싶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엄마와 함께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에 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이들은 걸려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도시와 농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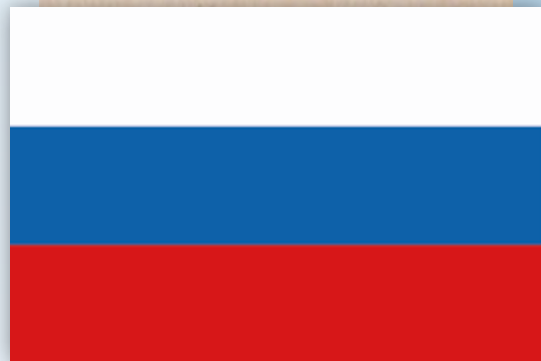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저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런 재능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엄마는 오페라 가수시거든요. 저는 노래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친구들에게는 함께 초등학교에 가자고 말해요. 저는 또한 증조할머니에게 어떻게 음식 축복을 하는지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식사 때 함께 기도합니다.



러시아 국기

출발 준비!

아리나의 가방에는 아리나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건 중 어느 것을 여러분의 가방에 넣고 싶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따뜻할 때는 엄마와 함께 볼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도 하죠. 추운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는 동물들을 구경하고 인형극장에서 인형극을 보는 것도 좋아해요.

사진은 아리나의 가족이 제공함. 배경: iSTOCKPHOTO/THINKSTOCK, 삽화: 알. 체드워드 배클레이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올** 리버는 오븐에서 구워지는 할머니의 초콜릿 케이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경건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하루 종일 이 특별한 가정의 밤을 고대했습니다.

“오늘 공과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이란단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엌은 우리가 지구로 와서 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천국처럼 될 거란다.”

“제가 거기에 있었나요, 할아버지?” 아치가 여쭙었습니다. 올리버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아치와 이든이 앉아 있는 부엌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있었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소리쳤지.”

아치와 이든은 환하게 웃으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가 먼저 천국을 떠나 지구로 왔을까?”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요.” 올리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그다음으로 할머니께서 나가셨습니다. 올리버의 가족은 그렇게 한 사람씩 모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침실은 이제 지구란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올리버가 대답했습니다.

“성전에 가요.” 엄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해요.” 아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든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속하는 한 부분이란단다. 우리는 곧, 다시 함께 지내게 될 거야.”

다시금 한 사람씩 모두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돌아왔어!” 품 속으로 달려오는 아치와 이든을 보시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가족들을 다시 만난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동생들과 함께 달려가 엄마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올리버는 할아버지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

## 노래와 성구

-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어린 이 노래책, 86~87쪽)
- 모세서 1:39

##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해 온 중요한 일, 예를 들어 기도, 침례 받기, 신권 받기, 성전 가기, 옳은 일 선택하기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하나씩 말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특별한 시간에 느꼈던 행복을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가족들이 앞으로 하게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해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계획을 계속 따를 때 얻게 될 행복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7:20
니파이후서 32:9
교리와 성약 124:34
니파이후서 32:5
교리와 성약 1:32
교리와 성약 33:11
교리와 성약 59:9
요한복음 5:39
교리와 성약 110:7, 9

###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성구가 적힌 조각을 모두 잘라서 탁자에 뒤집어 놓으세요. 돌아가면서 조각 하나를 집어 그 성구를 찾아보세요. 그런 후 그 조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단계들에서 해당되는 낱말을 찾아 그 옆에 풀로 붙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

성전

신권

성찬

성신

침례

회개

신앙

경전

기도

태어나기 이전의 삶



# 너와 걷고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못 걷는다  
피하지만



난 아냐!  
아냐!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말 못한다 놀리지만



난 아냐! 아냐!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으로 대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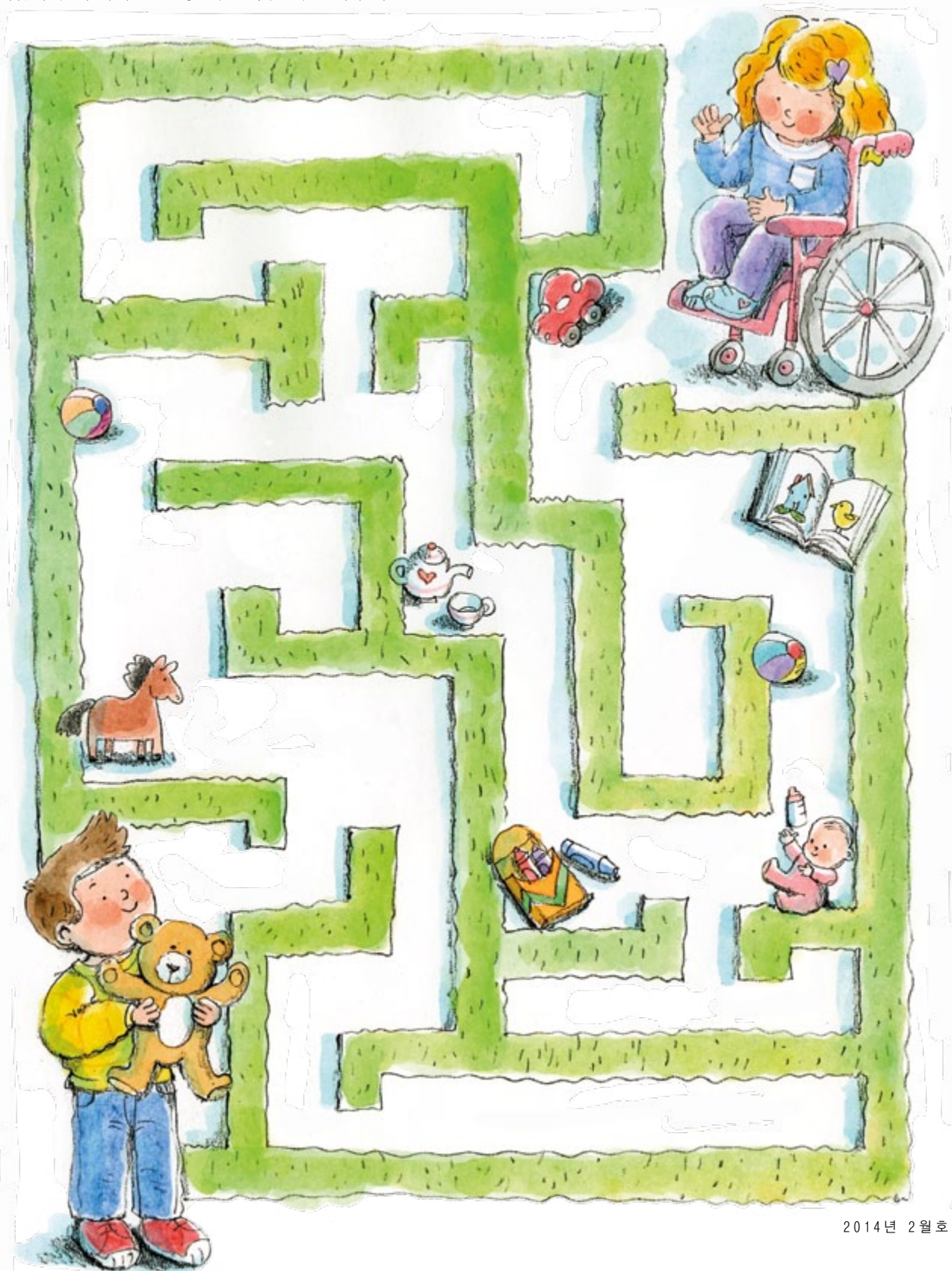
나 주 따르리





# 엘리가 제이콥을 찾도록 도와 주세요

엘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엘리는 친구인 제이콥과 함께 놀고 싶어 합니다. 엘리가 가는 길에  
 제이콥과 함께 가지고 놀 장난감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 표지판

제리 피크

**나**는 주로 지역 간선도로를 타고 출근한다. 그 도로는 가장 쉽게 직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교통 흐름도 느려지고 사고도 날 수 있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 애쓴다.

하지만 하루는 아침에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고 결국 교통 정체에 걸리고 말았다. 그 간선도로로 진입하면서 그날 아침에 했던 경전 공부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열중하고 영적인 것들에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어떻게 영적인 것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간선도로 위로 운전자들에게 사고나 도로 상황을 알리는 커다란 전광판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전방 메사 도로 충돌-중양 차선 봉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간선도로를 벗어날 때 찾아오는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간선도로를 빠져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계속 가보자고 생각했다.

그때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저 표지판을 무시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세상적인 것들에  
열중하느라  
영적인 안전을  
안중에  
두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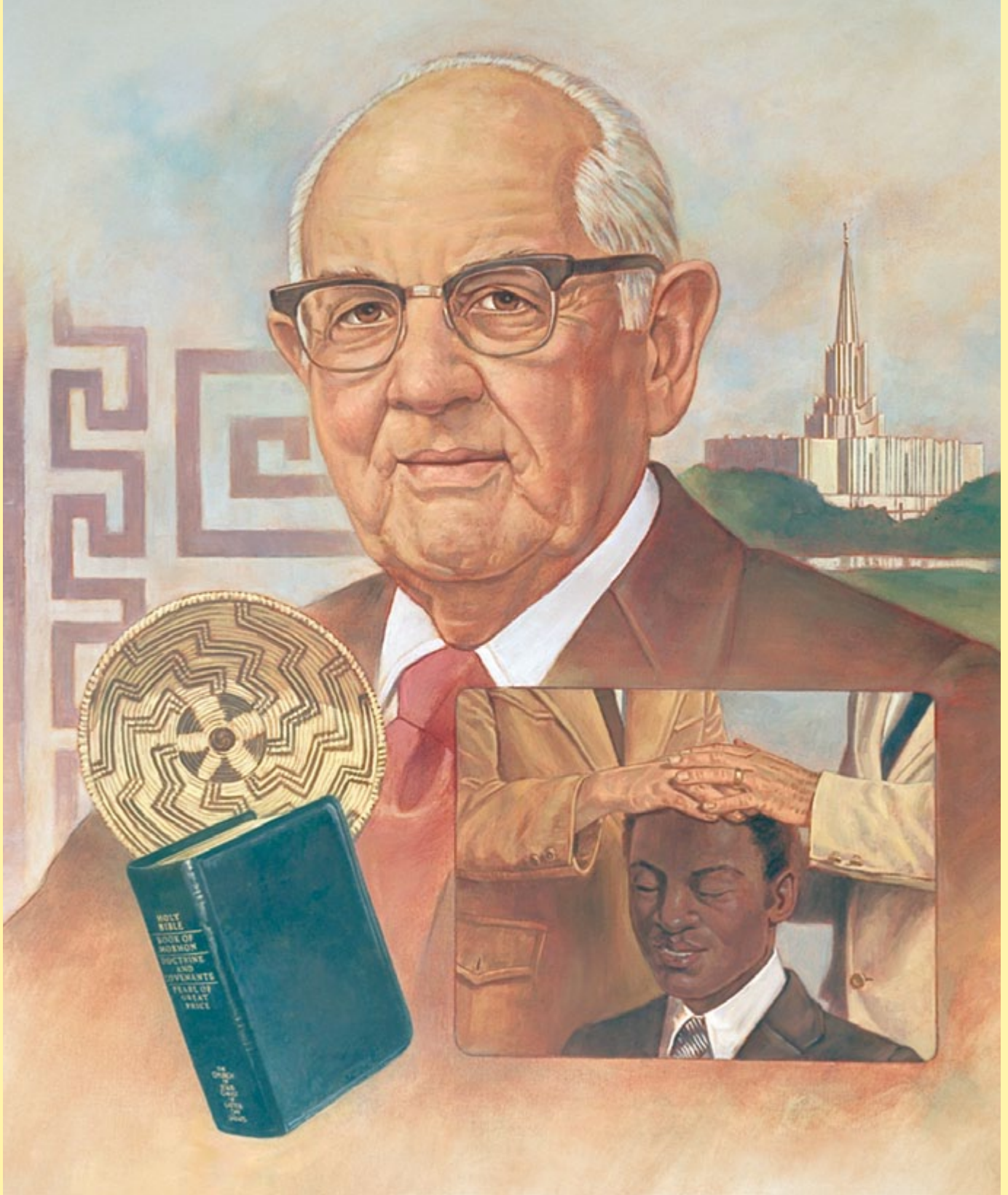
있을까?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확실히, 나는 육신의 안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영적인 안전에 대한 속삭임은 얼마나 자주 안중에 두지 않았던가?

어떻게 하면 영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시 나에게 하루 동안 많은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영적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분의 메시지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교통량을 확인한 후, 차선을 바꾸고 다음 출구로 나갔다. 도시 도로를 타고 출근함으로써 그 간선도로에 남아 있었더라면 사고가 완전히 정리되는 동안 생길 수도 있었을 모든 위험 요소를 피한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단순히 그분이 보내시는 영적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상화: 로버트 티 버렛

## 스펜서 더블유 김볼

스펜서 더블유 김볼은 레이맨인의 후손들을 사랑했습니다. 바구니와 배경 문양은 그가 그들의 문화를 사랑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는 새로 개정된 경전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합당한 남성은 신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유타 조던리버 성전을 포함하여 21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

## 청년 성인에게

48쪽



## 말한다, 듣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가?  
이 세 가지 유형의 대화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 청소년

## 성 전 축 복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 염려를 성전으로  
가져가서 영적 인도를  
받을 수 있다.

52쪽

## 어린이

66쪽



## 추수

영은 내가 일요일이 되기 전에  
추수를 끝마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